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으로 표현한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2023년 0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전공

이인승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으로 표현한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인 호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동양화 전공

이인승

이인승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최 석 원	(인)
부위원장	신 하 순	(인)
위 원	김 성 희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작품에 대한 연구결과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의 작업에 바탕이 되는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표현 대상과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설명한다.

나의 표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변화이다. 나는 현재의 변화 모습들을 포착하고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기술과 인식의 변화로 발생하는 산업의 변화를 점묘(點描) 기법을 활용하여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 표현하였다. 또 산업의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가 쌓아온 시스템의 변화를 채각(彩刻) 기법을 활용하여 폭발 이미지를 만들었다. 나는 논문에서 점묘(點描)와 채각(彩刻) 기법으로 표현한 폭발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밝혔다.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표현 방법으로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을 설명하였다. 내가 개발한 각각의 기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표현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하는 단계를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표현 기법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특성을 밝혔다.

주요어 : 변화, 불안, 폭발 이미지, 점묘(點描), 채각(彩刻)

학 번 : 2019-24061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ii
참고도판목록 ····· v
작품도판목록 ····· vii
표 목록 ····· ix

Ⅰ. 머리말 ····· 01

Ⅱ. 변화에 따른 불안과 폭발 이미지 ····· 05
1. 변화에 따른 불안 ····· 05
2. 불안과 폭발 이미지 ····· 12

Ⅲ.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 18
1. 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 20
2. 시스템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 40
3. 부정(不定)의 미래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 48

Ⅳ. 조형적 특성과 재료기법 ····· 57
1. 산업 변화 표현을 위한 점묘(點描) ····· 57
2. 시스템 변화 표현을 위한 채각(彩刻) ····· 65
3. 데칼코마니의 대칭구도 활용 ····· 75
4. 모란도와 분재 형상 활용 ····· 79

Ⅴ. 맺음말 ····· 85

참고문헌 ····· 88

작품집 ····· 93

Abstract ····· 96

참고도판목록

【참고도판 01】 장미꽃 단면

【참고도판 02】 <굴삭기 DX800>,2019,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참고도판 03】 <모란도>, 종이에 채색 233.4×228.4cm, 19세기, 서울역사박물관

【참고도판 04】 경복궁 정면

【참고도판 05】 파르테논 신전 정면

작품도판목록

【작품도판 01】<발화(發花)>연작, 2021, 장지에 채색, 193.9x130.3cm*3
【작품도판 02】<발화(發花) 유조선>, 2021, 장지에 채색, 116.8x72.7cm
【작품도판 03】<발화(發花)>연작, 2021, 장지에 채색, 130.3x193.9cm*2
【작품도판 04】<발화(發花) 굴착기>1, 2021, 장지에 채색, 143x93cm
【작품도판 05】<발화(發花) 굴착기>2, 2021, 장지에 채색, 143x93cm
【작품도판 06】<발화(發花) 시스템 변화>1, 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작품도판 07】<발화(發花)_시스템 변화>2, 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작품도판 10】<발화(發花) 유조선>, 2021, 장지에 채색, 116.8X72.7cm*2
【작품도판 11】<발화(發花)>연작, 2022, 아크릴 채색, 30x30cm*70
【작품도판12】<발화(發花)>연작 부분, 2021, 장지에 채색,193.9x130.3cm

표목록

【표 01】파편적인 정보와 점(點)
【표 02】점(點)과 산업의 변화 연결
【표 03】기계와 자연물 결합을 통한 의미형성
【표 04】<발화(發花)> 연작부분 모음
【표 05】<발화(發花)>연작 유조선, 발전소 부분>,2021, 장지에 채색
【표 06】<발화(發花) 연작 굴착기, 크레인 부분>,2021, 장지에 채색
【표 07】<발화(發花)>연작 유조선 확대 부분
【표 08】실크스크린 이미지
【표 09】<발화(發花)>연작 식물, 구름, 폭발 부분
【표 10】표면적으로 인식되는 현재
【표 11】인류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아크릴 적층
【표 12】12색 아크릴 물감 층의 쌓이는 과정
【표 13】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표 14】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세부 결과
【표 15】점묘(點描)이미지 제작 단계
【표 16】<발화(發花)>연작 부분
【표 17】먹으로 스케치 이후 실크스크린 작업을 진행한 굴삭기
【표 18】실크스크린 유무에 따른 차이
【표 19】점묘(點描) 사용 도구1

【표 20】점묘(點描) 사용 도구
【표 21】한지와 먹의 물성을 활용한 기법 2
【표 22】단순 그리기를 통한 폭발 표현
【표 23】물감 흘리기를 통한 폭발표현
【표 24】에어브러쉬를 활용한 폭발 표현
【표 25】에어브러쉬를 활용한 폭발 표현2
【표 26】채각을 활용한 폭발 표현
【표 27】12색 아크릴 물감 층의 쌓이는 과정
【표 28】12색 아크릴 색 종류
【표 29】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표 30】채각(彩刻)에 사용한 연마기
【표 31】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세부 결과
【표 32】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Ⅰ. 머리말

나는 변화에서 불안함을 느꼈다. 현재 등장하는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란 불안을 느끼게 한다. 기술은 최초의 목적에 맞게 일정하게 작동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여러 변수는 암울한 미래를 만들어낼 것 같은 불안을 만들어낸다. Ⅱ장에서는 분야별로 정리한 불안을 나의 불안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나의 불안이 기존에 정리되어있는 불안들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분야별로 제시된 불안 해결 방법이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확인한다. 또 하이데거가 정리한 존재자로서 본래적 자아를 직면하게 만드는 불안의 성질을 인용하며 나의 불안을 해소나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현재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깨닫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였음을 설명한다. 이어서 나의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으로 표현한 폭발 이미지를 광합성과 산화 반응에 빗대어 설명한다. 불안을 식물의 광합성에서 물과 이산화탄소의 결합을 도와주는 빛에너지로써 보고, 불안을 이용하여 현재 정보와 과거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그렸음을 설명하였다.

현재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거대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다. 또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에 현재 느끼는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작가로서 그림으로 현재 변화를 포착하고 미래를 상상해

보고자 했다. 내가 포착한 현재의 변화들은 기술과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기술과 인식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림으로 그려냈으며 이를 통해 변화 속에서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제작한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Ⅲ,Ⅳ 장에서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밝힌다.

Ⅲ장에서는 폭발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하였다. 기술과 인식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의 변화를 점묘(點描) 기법을 활용하여 폭발 이미지로 만들어냈음을 설명한다. 또 현재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변화를 채각(彩刻) 기법으로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 표현하였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대칭구도 및 우연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다가올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설명한다. 각 폭발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작품 속 이미지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며 각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을 주요 기법으로 가지고 온 이유를 설명한다.

산업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파편적으로 습득되는 정보들을 점으로 치환하고 점들을 산업에 활용되는 기계의 구성요소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이어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들이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밝힌다. 이를 위해 파편적으로 접촉된 정보들과 그에 따른 변화 양상을 각 산업분야의 논문들을 토대로 기술과 인식의 변화가 그림 속에 표현된 산업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힌다. 시스템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온 시스템을 상징하는 12겹의 아크릴 적층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를 활용하여 깎고 갈아내면

서 새로운 시스템을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가 만들어짐을 설명한다. 채각(彩刻) 기법으로 표현한 폭발 이미지는 현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접촉되는 현재를 과거와 함께 이해하며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작가의 자세를 시각화한 것임을 밝힌다. 추가로 불안하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폭발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대칭 구도와 우연적 기법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이어 변화하는 현재를 인식하고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힌다.

Ⅳ장에서는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점묘(點描)와 채각(彩刻)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이어서 각 방법을 사용한 방식과 과정을 밝힌다. 해당 장은 Ⅱ장에서 말한 산업의 변화 모습을 점묘(點描)로 표현했음을 기술한다. 또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변화를 채각(彩刻) 기법으로 표현하였음을 기술한다. 또 작업의 과정을 밝히며 각 기법과 재료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밝힌다. 점묘(點描) 기법으로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총 다섯 단계를 기술한다. 산업 이미지 수합, 다수 이미지 합성, 연한 먹을 활용한 스케치, 실크스크린을 통한 가이드라인 형성, 한지와 먹의 특성을 활용한 점묘(點描)로 이어지는 총 다섯 단계를 설명한다. 이어서 채각(彩刻) 기법으로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기까지 진행한 다양한 표현 연구 과정을 설명하며 채각(彩刻) 기법이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밝힌다. 또 열 변화특성을 가진 아크릴과 고속으로 회전하며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연마기의 특성을 활용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재료와 표현 도구의 특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미지의 독창성을 설명한다. 이어서 대칭 구도를 통한 시각적 안정감을 달성했음을 밝히고 모란도와 분재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 접근성을 높였음을 밝혔다.

Ⅴ장에서는 앞서 Ⅱ장부터 Ⅳ장 까지 언급한 폭발 이미지의 상징과 표현과정과 재료기법을 정리하고 차후 연구의 방향을 밝힌다.

Ⅱ. 변화에 따른 불안과 폭발 이미지

나는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으로 두 가지 폭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 그림들을 통해 내가 현재 느끼는 불안과 나의 삶의 방향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가 현재 발생하는 기술들에서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밝힌다.

1. 변화에 따른 불안

2016년 바둑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한 알파고가 인간을 상대로 승리했음을 알리는 뉴스가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소수 컴퓨터 전문가들의 논문에서만 제시되었던 AI가 실제로 작동한 것을 전문 집단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알게 된 사건이었다. AI뿐 아니라 우주 기술, 컴퓨터 기술, 에너지 발전기술 등은 매번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놀람은 현재가 마치 당장이라도 미래로 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기술의 발전은 항상 존재해 왔다. 생산성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은 항상 발전해 왔으며 우리는 그런 기술 진보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다. 기술발전으로 우리 삶이 윤택해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선 인간 고유의 전문성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이 더 크다. 단순히 체스나 바둑의 영역을 넘어 AI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AI뿐 아니라 로봇기술의 혁신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할 듯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모방하고 있다. 산업

화시대 숙련공의 일자리를 잃게 했던 기계와 같이 현재 등장하는 기술들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진다. 오히려 과거 사례를 넘어서 전문 숙련공의 일자리 정도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다.

기술 변화 목적이 과거에는 생산성의 효율성 증대였다면 현재의 기술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기술들에서 나는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동시에 느껴진다. 식량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는 인공 배양육과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발전하는 인공장기나 줄기세포 기술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침범하듯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하는 뉴럴링크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과 기술은 과거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서 보여주는 개조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진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술들은 "호모데우스"를 집필한 유발하라리의 말처럼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게 만들어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들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들은 지속 되며 현재 인류가 개발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목전에 있다는 생각과 함께 기술이 우리를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든다면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미국의 우주기술 기업인 스페이스 X와 블루오리진 등의 재활용 가능한 로켓 기술은 민간인의 우주여행을 앞당기고 있다. 이런 기술에 대한 정보는 미지의 세계인 우주로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엄함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다를 두

고 경쟁하며 식민지를 만들었던 인류의 역사가 되풀이될 것 같은 불안을 동시에 만든다. 핵분열 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되는 핵융합 발전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을 만든다. 하지만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기술의 등장은 석유와 달러 거래로 만들어진 페트롤 달러 시대의 종말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권위 상실을 만들어 미국 중심으로 안정화된 국제질서의 붕괴가 만들어질 것이란 불안을 만든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기술 탄생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온다. 특정 정보가 나에게 들어와 만들어내는 수많은 생각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든다. 때문에, 나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시작할 수 없는 주저함이 생겼다. 당장이라도 미래로 바뀔 것 같은 현재에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불안한 것이다. 새로운 변화 직전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다. 지금은 우습지만 2000년 직전 컴퓨터 전산오류로 인류의 정보시스템 붕괴가 있을 것이란 Y2K라고 불린 불안은 결국 사실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니 사라졌다. 하지만 현재 등장하는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불안은 아직 실험실에 존재하는 기술들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당장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작가가 되기 위해 배웠던 3D그래픽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 영역이 보편화 되며 기존 기술을 배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한다. 또 이런 기술의 발전은 새로 나오는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기도 하고 배워도 의미 없다는 허무함을 만들기도 한다. 배워서 내가 남들보다 차별화된 특수한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

지는 기술도 만들어지지만 그런 기술들을 의미 없게 만드는 보편성으로 무장한 기술도 등장한다. 이런 생각은 꼬리를 물어 인간으로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나뿐만 아니라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을 만들어낸다.

위와 같이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 변화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당장 현재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불안도 존재한다. AI 기술의 보급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대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이는 국내 반도체 회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바람에 따라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메이커 외 새로운 시장 점유자의 등장을 만들고 있다. 현재 발생하는 기술과 인식의 변화는 내가 속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먼 미래뿐 아니라 현재 발생하는 변화들 역시 나에게는 불안함을 만든다. 이런 불안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가진 불안을 해결해야 했다.

불안이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의 명사로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이다.”라고 한다.[1] 정신분석학에서는 “모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걱정하

1) “불안”,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2.12.10.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면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2] 사전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정 대상이 없거나 모호한 위험은 기술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 변화가 불러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체나 명확한 위협이 아니기에 사전적 정의와 일치해 보이나, 내가 관심을 가지는 기술은 명확하게 존재한다. 때문에, 사전적 정의만으론 나의 불안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정신분석 강의』를 집필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불안의 종류를 '현실적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등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첫 번째로 현실적 불안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인지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것이다. 신경증적 불안은 본인의 원초적인 욕구가 사회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은 본인의 행동이 도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안이다.[3] 내가 느끼는 불안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현실적 불안과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현재 내가 정보를 통해 느끼는 불안이 실질적인 위협보다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실재하지 않는 위협이기에 나의 불안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앞서 말한 것 같이 기술의 발전 이전에는 불안이 항상 존재해 왔다. 기술 등장 이전의 불안은 나의 불안과 유사해 보인다.

---

2) "불안", 네이버지식검색, 검색일 2022.11.1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45&cid=48639&categoryId=48639

3) 이수진, 「프로이트와 라캉, 불안의 개념화와 정신분석 실천 함의불안, 행위(로)의 이행 너머 환상의 횡단으로」, 『한국현대 정신분석학회』(2021):9-45.

금속활자부터 인터넷까지 모든 기술의 등장에는 인류의 혁명적인 진화라는 기대와 동시에 기존 질서를 파괴할 것이란 두려움이 공존했다.[4] 이런 불안은 기술이 실제 작동하면 해당 기술에 구세대가 적응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에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해소하였다.[5] 하지만 내가 가지는 불안의 원인인 기술들은 아직 실제로 작동하기보단 초기 단계에 머물러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는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학계에서 불안을 "위험에 처했을 때 투쟁하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꼼짝 못하거나 하는 대처를 통해 생존을 위한 준비와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6] 의학계에서는 주의를 전환하거나, 근육의 이완, 약물 요법,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불안을 해결한다.[7] 하지만 위의 방법은 불안이 병적인 상태에 있을 때 진행하는 것으로 나에게 맞는 해결 방법은 아니다. 사

---

4) 임정수,「매체 도입기에 나타난 두려움에 대한 연구 = 혁명적 변화와 진화적 변화의 중재기제로서의 두려움)」,『한국언론학회』49(2005): 33-51.

해당 논문에서는 활자부터 인터넷까지의 정보 전달 기술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두려움을 언급한다. 다른 분야(의학계, 심라학계)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위협이 되는 실체에 대한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하나 해당 논문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는다. 위 논문에서의 두려움은 내가 느끼는 기술의 파급력에 대한 불안과 일치한다.

5) 임정수, 위 논문. 46p.

6) 함병주,「불안, 공포의 정의 및 조절」,『대한마취학회지』7(2007): 107p.

실 나의 불안은 지극히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다. 다만 정보획득이 편리한 현재를 살아가며 기술 출현 정보 접촉과 함께 불안의 생성 빈도는 높아진다. 불안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방어 본능이자 자아 직면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삶의 기준을 잃는 경험에서 으스스함과 두려움을 느끼기에 일반적으로 불안으로부터 도피한다. 하지만 불안이란 존재자의 본래적 실존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8] 하이데거가 정의하는 불안은 나의 불안이 해소의 대상인지 질문을 만든다. 의학적으로 중증이 아니고 불안으로 인해 나 또는 주변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이데거가 말처럼 나의 불안은 해소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7) 함병주, 위 논문. 111p.

8) 이서규,「불안의 극복이 가능한가?」,『대한 철학회』159(2021): 165-196.

하이데거는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한다.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진 비본래적 자아가 본래적 자아를 직면하지 못하게 도망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정의한다. 반대로 자아가 스스로 기준을 찾아 본래적 자아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불안이라고 정의한다.

2. 불안과 폭발 이미지

나는 앞서 여러 분야에서 정의하는 불안에 대해 살펴보며 나의 불안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기 힘들었고 또 해결 방법이 나의 불안에 적합한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이데거가 정의한 불안 역시 나의 불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안 자체가 해소나 극복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만들었다. 오히려 불안을 활용하여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여러 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불안의 활용방법을 식물들의 광합성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이데거의 불안에 대한 정의처럼 나의 불안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비본래적 자아를 벗어나 발생하는 변화들 속에서도 나만의 가치를 찾도록 만드는 본래적 자아를 직면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를 통해 나는 나에게 접촉되는 무수한 현재 정보들과 과거 정보들을 결합하여 나만의 가치를 찾아내는 깨달음이나 지혜로 만들고자 하였다.

광합성은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CO2) 물(H2O)이 결합하여 포도당(C6H12O6)과 산소(H2O)를 만들어내는 산화-환원 과정이다. 식물은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저에너지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고에너지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결합 원동력은 빛에너지이다. 나는 저에너지들을 결합하는 빛에너지와 같은 원동력을 불안이라고 생각했다. 생명의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인류가 만드는 기술 및 현재 정보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마치 과거부터 쌓여온 인류의 역사라는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나는 불안을 정보를 분류하고 조합하며 나만의 지혜와 깨달음을 찾는 원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작품도판 01】<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83.9x120.3cm*3

그림을 구성하는 점은 현재 발생하는 기술과 인식 변화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 정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런 정보의 집합으로 만들어진 식물 이미지 사이에서 피어나는 폭발 이미지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꽃이면서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이다.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에너지인 빛과 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여 고에너지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을 빗대어 불안을 현재 접촉되는 정보와 과거 정보를 결합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여 산소와 포도당 같은 깨달음과 지혜로 환원(還元)한다.

내가 속한 미술 분야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는 AI였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개발기업 OpenAI가 개발한 DALL-E 2는 기존 이미지 관련 AI와는 다르게 이미지를 창조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기존 이미지 관련 AI는 이미 존재하는 스타일을 기반으로 다른 형태를 만드는 소극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DALL-E 2는 적극적으로 이미지 선택과 구성을 해냈다.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믿던 창작 능력까지 AI 침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로든 DALL-E 2 뿐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생산 AI 개발되는 정보들은 나뿐만 아니라 미술계 내부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나는 이런 정보를 수합하고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과거 미술계를 보게 되면 사진기의 등장 때처럼 예술은 기술의 발전에서 새로운 선택들 할 때가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술계를 넘어 다른 예술계를 보면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다. 음악과 영화계를 보면 기획자와 시행자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전체를 기획하는 능력은 아직 인간의 영역이다. 물론 이것 역시 언젠가 AI의 능력으로 와해 되겠지만 아직까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불안을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를 수합 하면서 나만의 깨달음과 지혜로 바꾸었다. 그 결과는 이제는 작가가 이미지 생산자로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기획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자로서 예술가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 생산자로서 예술가는 AI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다.

-2022.11 이인승 작가 노트

위처럼 나에게 발생하는 불안을 현재 정보와 과거 정보를 결합하여 나만의 삶을 살아갈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또 나만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을 일으킬 예정이다.

나는 이번 논문에서 폭발 이미지가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지 밝히고 있다. 폭발 자체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산화-환원에서 산소의 양이 적을 때는 노화나 부패, 부식 등의 느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반대로 산소의 양이 많을 때는 연소나 폭발 등의 빠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단순히 산소가 많다고 폭발이 생기지 않는다. 높은 산소 농도 조건에서 가연성 물질이 존재해야 한다. 나는 이런 가연 물질을 우리 시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라고 보았다. 모든 기술은 최초에는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최초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기술개발은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개발과 실험의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에서도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험실 밖에서의 기술은 우리 인류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규칙적으로 작동하며 결과가 예상되는 기술이 인류가 쌓아온 관습이나, 절차, 법과 부딪힐 때 실험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나는 이런 변수를 가연(可燃)물질이 만들어내는 스파크라고 본다. 인류가 쌓아온 시스템[9]의 표면이 기술과 맞닿을 때 발생하는 마찰로 스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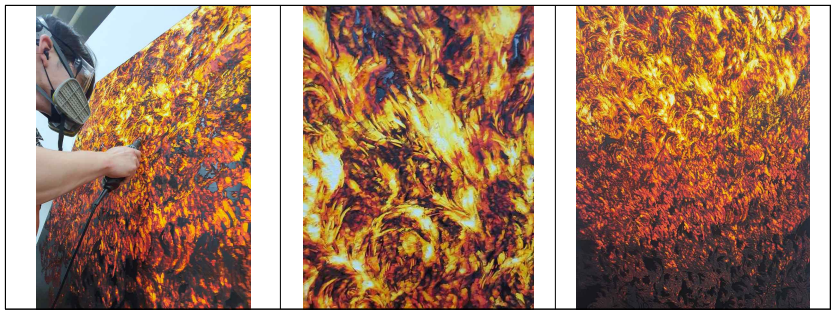
---

9) 시스템

인류가 쌓아온 관념, 관습, 질서, 방법, 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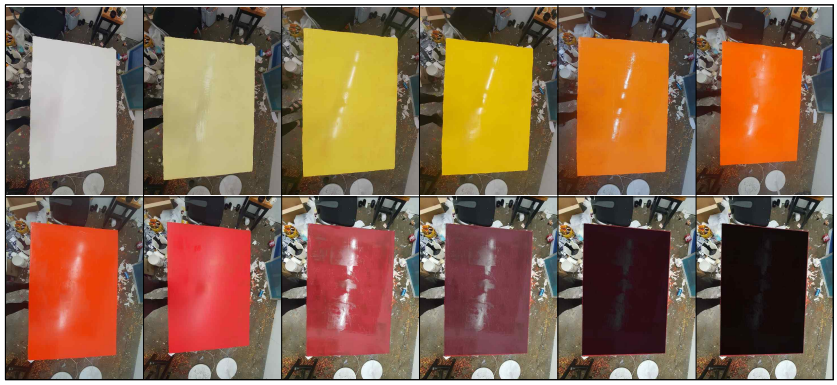
만들어져 폭발이 생긴다고 보았다.

【표 1】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시스템이란 중앙 처리 장치·기억 장치·입출력 장치·통신 회선 등의 유기적 결합으로 주로 컴퓨터에서 쓰이는 말이다. 일반적으론 체계적인 방법이나 조직, 또는 제도. 순화어는 `조직', `체제', `방식'으로 쓰인다. 내가 폭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쌓은 12겹의 아크릴 색들이 상징하는 것은 인류가 쌓아온 시스템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작게는 우리가 음식을 살 때 물건과 금전을 주고받는 방식에서부터 크게는 금전 거래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시스템과 그것을 포함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또 작게는 기업과 노동자가 위해 노동력과 임금을 교환하는 것과 크게는 노동력 제공과 관련된 법과 그것을 포함하는 인본주의를 기반하는 법률원칙이다. 우리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온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우리 일상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고 계속되어 행해지는 것이 내가 말하는 인류가 쌓아온 시스템이다.

【표 2】12색 아크릴 물감 층의 쌓이는 과정



나는 일정한 속력을 내며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라인더를 인류가 만들고 있는 기술의 상징물로 사용했다. 또 12겹의 아크릴을 인류가 쌓아온 시스템의 상징물로써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스파크가 기존 점묘 그림에서 만들어 낸 산소를 상징하는 깨달음이나 지혜와 함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냄을 그려내고 싶었다. 앞서 기술발전으로 만들어지는 불안을 활용하여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를 수집하고 깨달음과 지혜로 만들어낸다면 그것들이 한곳에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키는 폭발을 만들 것으로 생각했다. 거시세계에서 바라보면 금방 사라져 다시 자연의 순환계로 환원될 폭발이지만, 미시세계에서 바라보면 혼란은 끝없이 증가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는 매일 매 시각 변하는 것들로 혼란스럽다. 나는 폭발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 혼란을 증가를 정지시킨 상태로 바라보고 우리의 변화하는 현재 상태를 관찰하며 변화의 과정에서 불안을 잊고 정면으로 그것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Ⅲ.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폭발이미지로 표현하였다. 20년부터 22년 작업은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으로 나누어진다. 면봉을 사용하여 한지위에 먹을 찍어 산업에 활용되는 기계를 그려낸 점묘(點描) 작품은 기술과 인식의 변화로 발생하는 산업의 변화를 폭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아크릴을 쌓아올려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마기로 깎고 갈아내는 채각(彩刻) 작품을 통해서 다가올 시스템 변화를 폭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이런 그림을 통해 변화가 불러올 결과가 정확하게 예측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나는 현재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다. 마치 우리의 현재는 당장이라도 내일 미래가 될 것 만 같다. 나는 현재가 미래 직전의 현재라고 느껴진다. 작품을 하며 들려오는 수많은 기술발전 수준과 기업의 현황 정보들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게 만든다. 미래에 대한 상상은 항상 불안을 동반했다. 단순히 현재의 파편화된 정보를 통해 상상한 미래는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든다. 과거와 달리 너무나 많은 정보가 개인에게 전달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관심 있는 분야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내가 편한 시간에 전달해준다. 너무 많은 정보 전달은 나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 불안을 선사한다. 심지어 이런 정보들은 파편화되어 나에게 들려온다. 때문에, 내가 접촉한 정보보다 생성되는 정보가 더욱 산적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더욱 미래에 대한 상상을 부정적으로 이끈다. 때문에, 나는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두 습득하는 것 보다 이미 습득된 정보들을 하나로 뭉쳐 인식하기를 선택하였다. 또 너무 많은 정보량으로 현재만을 인식하게 만드는

상황을 벗어나 과거와 함께 현재를 인식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아래에서 설명할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점묘(點描) 그림들은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로 엮어 산업의 변화를 포착한 결과물이다. 다른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채각(彩刻) 그림은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함께 읽어내려는 작가로서의 태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21년에 그린 점묘(點描) 그림들은 현재 산업이 기술과 인식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기존의 가치들이 분열되며 새로운 가치가 탄생하고 있음을 그렸다. 22년에 그린 채각(彩刻) 그림들은 현재의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나는 이런 그림을 통해 현재의 변화를 포착하였고 그것을 통해 우리 스스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의 긍정적 미래를 그리기를 희망했다. 또 우리의 현재를 후대의 미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미래로 나아갔던 진보하는 시대로 봐주기를 희망했다. 이번 장에서는 점묘(點描)를 통해 포착한 현재의 변화가 무엇인지와 채각(彩刻)을 통해 표현한 폭발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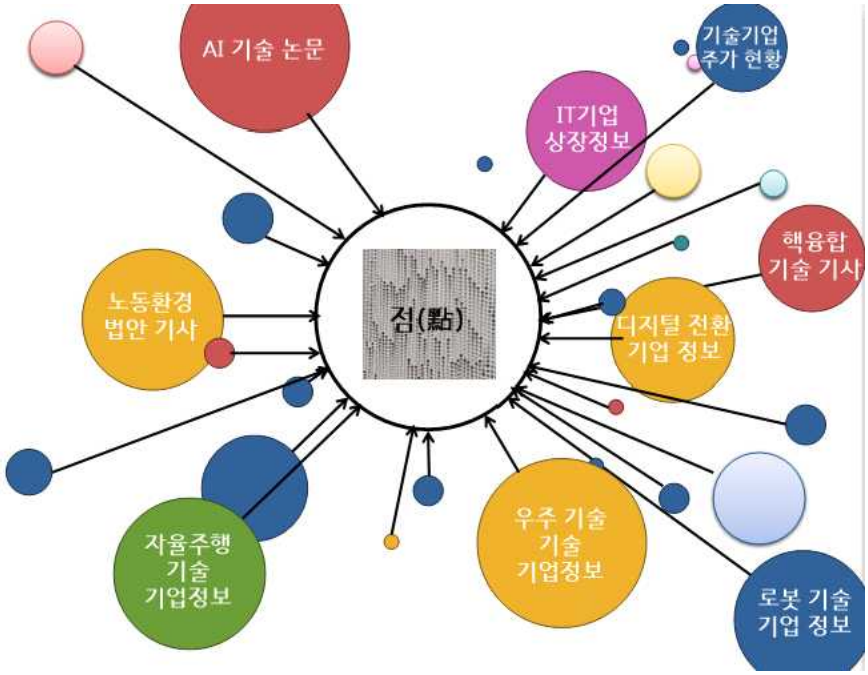
1. 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2021년에 제작한 그림에선 여러 가지 산업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이미지들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이다. 건설업을 상징하는 굴착기와 타워크레인, 수송산업을 담당하는 유조선과 항공기,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 조선 산업을 상징하는 대형 선박등이 등장한다. 위 기계들은 산업을 지탱하는 많은 기간산업 중 일부다. 해당 이미지들은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담고 있으면서 그림 속 폭발의 이미지는 다가올 변화를 상징한다. 앞서 점묘(點描)를 통해 내가 접촉한 수많은 파편화된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여 현재를 포착한다고 했다. 아래에선 점묘(點描)를 통해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였는지 밝힌다.

【작품도판 01】<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93.9x130.3cm*3

점묘(點描)로 표현한 폭발 이미지에서는 파편적으로 다가오는 많은 정보 사이에서 공통점을 획득하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엮어내고자 하였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바다는 인터넷의 민간 사용이 시작되면서 국내에서 자주 활용되는 말이었다. 이를 넘어서 모바일 생태계가 구축되며 정보에 접근하려는 노력 이전에 이미 정보가 우리의 손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때문에, 정보 획득의 편리함도 있지만 동시에 획득 가능한 정보보다 놓치는 정보가 많을 것이란 불안도 생겼다. 때문에,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 획득한 정보들을 엮어내어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고자 하였다.

【표 01】 파편적인 정보와 점(點)



최초에는 나에게 접촉되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접촉되는 파편적인 정보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기술과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AI, 양자컴퓨터, 로봇, 핵융합 원전, 블록체인, 유전자가위 등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기술에 대한 정보들이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접촉되었다. 이런 관심은 기술에 따른 투자 시장에 관심을 자연히 불러왔다. 투자 시장에 관심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문화가 무엇인지 관심 가지게 해주었다. 투자 문화는 현재 인류가 고민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보를 던져주었다. 이렇게 기술부터 인류의 고민까지 많은 정보가 나의 주변을 돌아다녔다. 나에게선 정보들이 발생하고 향하는 곳은 기업들의 변화 현상이었다.

【표02】 점(點)과 산업의 변화 연결

무수한 정보들과 산업의 변화를 연결하기 위해 정보를 상징하는 점(點)을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접촉되는 모든 정보 중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로만 선별했음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의 변화를 점으로 그려내는 것은 모방적 재현[10]일 뿐이다. 단순히 사회의 모습을 모방하듯 재현할 것이라면 사진기나 다른 매체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작가로서 세상을 포착했다고 말하기 위해선 점(點)과 산업의 연결 이후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의미를 그림에 담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이미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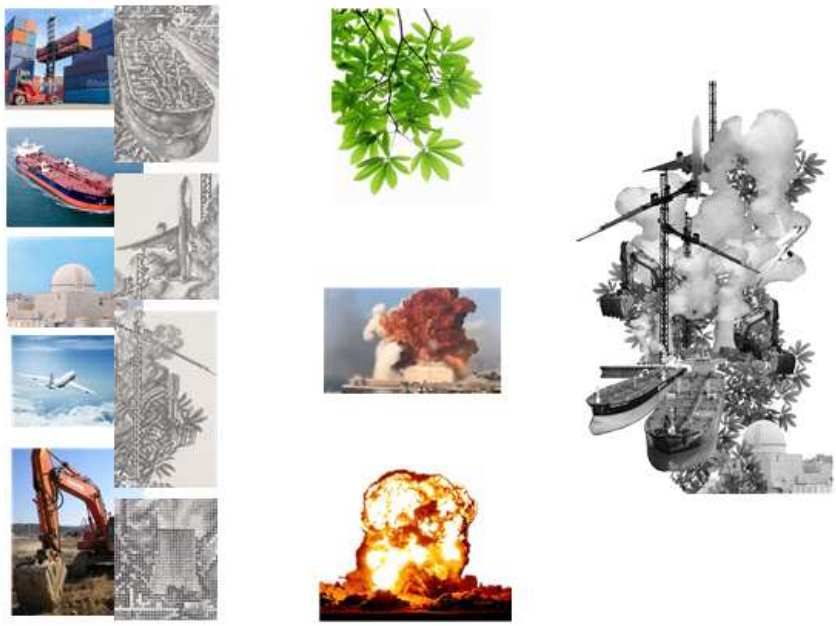
10) 아서 단토(Arthur C. Danto), 『예술의 종말 이후: 컨템퍼러리 아트와 역사의 울타리』, 이상훈 역, (한국, 미술문화, 2004).

- 아서 단토는 본인의 저서에서 사진기 및 복제매체의 등장으로 재현의 개념이 종료되었음을 밝혔다.

이주연, 「변모된 재현개념이 미술사 서술에 끼친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주연의 논문은 기존의 사진기 등장과 함께 종료된 재현과 후속하여 진행된 재현 확장 논의들을 열거하며 기존의 재현을 모방적 재현으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재현이 사물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에 집중한 모방적 재현과 사회의 인식, 논의, 이론,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확장된 재현이 존재함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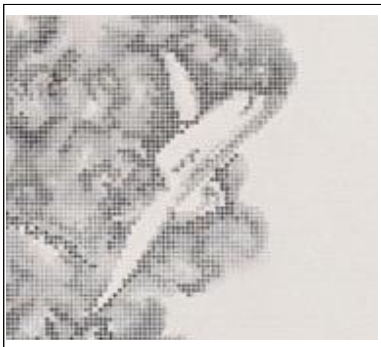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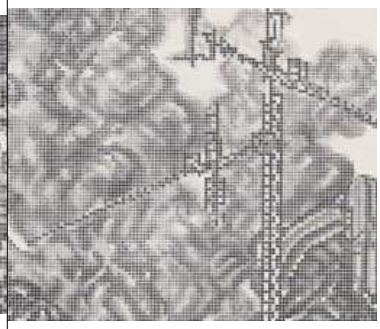
【표 03】기계와 자연물 결합을 통한 의미형성



점으로 그려진 기계 이미지 외 식물과 먹구름, 폭발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현재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현재 변화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 담겨있는 포착의 영역으로 확장 시켰다. 단단한 기계들이 점으로 분열하고 부딪히면서 폭발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발생한 먹구름을 자양분 삼아 새롭게 피어나는 식물을 이미지에 결합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술과 인식 변화로 산업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속 세부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 위 그림【작품도판 01】 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표 04】 <발화(發花)> 연작부분 모음

	
항공기	유조선
	
컨테이너선	크레인
굴삭기	발전소

【표 04】은 【작품도판 01】의 부분이다. 해당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각종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이 보인다. 건설업을 대표하는 굴착기와 타워크레인, 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원자력 발전소와 유조선 및 시추선, 물류 산업을 대표하는 선박, 항공기가 먼저 관찰된다. 조금 더 작품을 가까이 보면 각 산업 기계들이 점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점(點)들은 나에게 들려오는 정보의 집합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산업 기계가 점으로 그려진 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기계란 원래 단단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진동과 대양의 파도, 지구의 중력, 핵분열의 파괴력 등을 이기고 굳건히 일하기 위해선 단단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현재를 이루고 있는 산업들이 기술과 인식 변화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것을 그리고 싶었다. 때문에, 단단함을 위해 이루어진 밀도 있는 기계들을 점과 점으로 찢어 원자가 분열하는 모습으로 연출했다. 기계를 구성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엔진과 엔진을 가동에 필요한 연료와 보관함, 각 부위를 연결하는 부속들과 힘을 전달하는 동력전달 장치 등이 있을 것이다. 최초 나는 기계를 움직임과 고유의 기능을 위한 부품들로 바라보았다. 그렇기에 점으로 기계를 그린 것에 대해 설명할 때 단순히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이 점 단위로 찢어지는 것이 변화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기계비평』이란 저서로 알려진 이영준 비평가의 논리 전개를 차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영준 비평가는 대형물류 선박이란 기계를 비평하기 위해 단순히 선박의 크기와 배수량, 무게, 선적 가능 정도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기계가 어떤 이들에게 필

요하고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구동하는지 설명하며 딱딱한 기계로부터 인간의 모습을 담는다.[11] 나는 이영준 비평가의 기계로부터 인간으로 향해가는 전개에 영감을 받아 최초 작품을 제작한 이후 나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졌다. 단순히 딱딱한 기계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을 구성하는 수많은 객체와 인식 등이 바뀌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 속 기계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부속품들로 이루어졌다고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산업이 필요함을 기획했던 사람과 기계를 설계했던 당시의 상황,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세금 또는 투자금,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과 기계의 도움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 등 다양한 객체와 가치가 존재함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작품도판 02】<발화(發花)_유조선1>, 2021, 장지에 채색, 72.7x116.8cm

11) 이영준, 『기계비평』, (서울:현실문화연구(현문서가)), 2016.

【표 05】 <발화(發花)>연작 유조선, 발전소 부분>,2021, 장지에 채색

위 논리를 통해 나는 그림 속 기계의 구성요소를 여러 사람들로 나누었다. 기계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기계를 설계한 사람, 기계를 운용하는 사람, 기계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기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존의 가치가 바뀌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존 산업은 환경이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의 산업은 환경이 주요 고려 대상이다. 투자자들은 미래기술에 투자 가치관을 두고, 미래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 집중한다. <발화(發花) 유조선>, <발화(發花) 연작 유조선, 발전소 부분>을 보게 되면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투자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유조선과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계들이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을 위해 만들어지고 작동한다. 또 이 기계들을 통해 이윤을 얻는 사람도 있고 생활편의성을 포함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제 기후위

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투자 문화[12]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기존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술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작품도판 01】에서 굴삭기는 최초 등장했을 때와 비교하여 기계 고유의 기능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기계 역시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화가 진행 중이다. 친환경이란 요구에 따라 굴삭기의 내연기관에 대한 변화가 전기 굴삭기 또는 하이브리드 굴삭기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13] 이처럼 기존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유조선, 발전시설, 가동기계들을 구성하는 수요자, 제작자, 사용자, 수혜자들의 가치가 분열되고 변화하고 있다.

---

12) 김현, 「건설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기술동향과 전망.」,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2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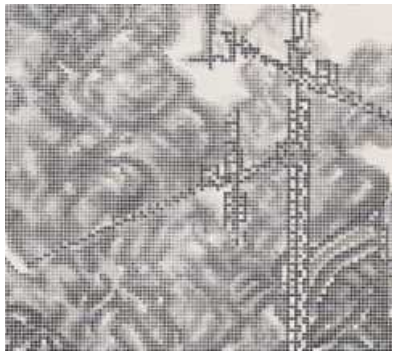
두산백과, “ESG”, 단어검색, 검색일 2022.09.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3698&cid=40942&categoryId=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최초 투자 시장에서 발생한 이후로 경영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이다.

13) 조성우, 유승진, 박철규, 「하이브리드 굴삭기 연비 개선 연구」,『대한기계학회』39,(2015):211-217.

【표 06】 <발화(發花) 연작 굴착기, 크레인 부분>,2021, 장지에 채색



【표 06】 속 기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산업 변화를 담고 있다. 두 기계는 건설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땅을 파고 내려가 기반을 다지는 기능을 굴삭기와 무거운 자재를 하늘 높이 올려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크레인은 건설업을 상징하는 기계들이다. 과거 대한민국 건설업을 수식하는 용어가 있었다. '초단기간' 이런 용어는 대한민국 건설업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런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뒤따랐다.[14]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업의 초기에 설계능력 부족으로 시공과 하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때문에, 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였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설계능력과 시공능력의 발전에도 여전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공하는 문화 존재한다. 건설 기계를 구매한 경영자들과 그것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14) 이현숙, 「2021 산업재해 발생 현황」,『고용노동부』. (2022).

2021년 기준 산업별 산업재해(사망) 총 2,080 중 551건으로 가장 높았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 안전을 중요시하는 법률[15]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제재[16] 역시 생겨나고 있다. 이런 변화 역시 산업을 상징하는 기계들이 점으로 분열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던 중후장대 산업인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산업 속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가진 고유의 가치가 변하고 있음을 말한다.

위의 환경 및 윤리적인 인식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의한 변화도 존재한다. 【작품도판 01】속 기계들은 모두 기술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AI(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항공기의 경우 현재 군용으로 AI 무인기가 개발 중이며 실전 배치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의 군용으로 비행기가 실용성을 보인 이후 민간항공기가 상업화된 것을 본다면 곧 AI를 적용한 민항기가 등장할지도 모른다.[17] 이미 자동차는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기 뿐 아니라 선박등에도 다양하게 AI가 적

---

15)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의 법적 쟁점-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한국사회법학회』46,(2022):519-553.

16) 곽교, 권영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대한 신뢰 및 평판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윤리적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기업경영학회』32,(2016):23-42.

17)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 「항공용 인공지능(AI) 시장(출처 : TechNavio,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Aviation Market」, (2018).
해당 보고서는 항공기용 AI 개발과 수요 시장의 확대를 말한다.

용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에서 보듯 Ai가 모든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조수단으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가장 큰 변수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이다. 만약 인간에 대한 신뢰성 보다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AI는 인간의 보조수단이 아닌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현재 개발되는 기술의 속도는 그림에 그려진 다양한 기계를 운용하는 노동자들의 가치를 변화시킬 것이다.

AI 뿐만 아니라 산업의 변화를 예고하는 기술들은 다양하다. 그 중 인더스트리4.0 이라 불리는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과제는 모든 산업 생태계를 통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18]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디지털트윈이다.[19] 산업 속 부속, 기계, 결과물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공간에 복제하여 외부변수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들의 온라인 출구전략들은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20]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고 있

---

18) 오원근, 김인재,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인지 분석: 제품수명주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사이언스학회』,(2020):89-100.

19) 김무영,「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한 물류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적용 요구분석 = A Needs analysis of requirements for digital twin technology for logistics industry using Borich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2022학위논문(석사),(2022)

20) 정준모. 「무역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위한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연구분석」,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2022): 147-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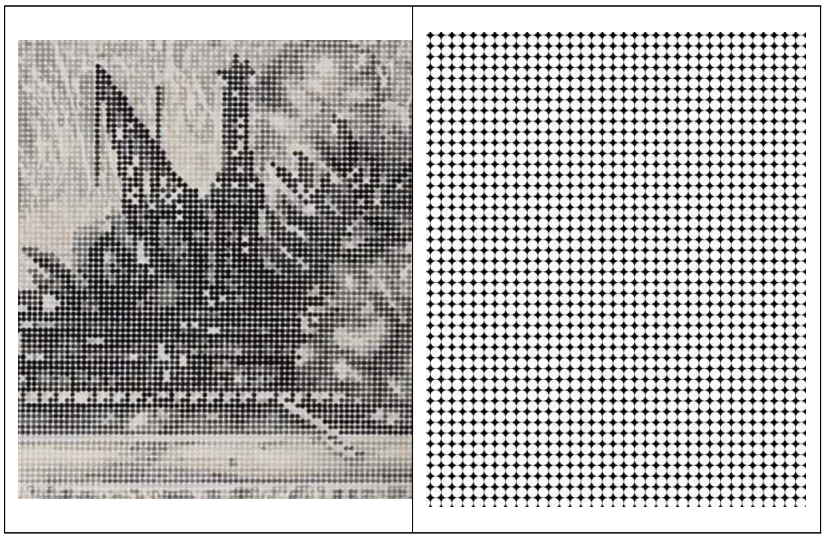
김현, 「건설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기술동향과 전망.」, 『한국건설관리학회

다. 그림에서 보이는 무수한 점들은 앞서 주장한 것처럼 기계를 구성하는 객체들의 가치일 수도 있으며 기계 자체가 0과1의 디지털화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작품 속에서 형상을 만들어내고 내용을 담고 있는 무수한 점들은 면봉에 먹물을 묻혀 찍는 방식으로 그려진다. 작품에서 점들은 균일한 망점의 실크스크린을 통해 배치할 공간을 형성한 후 종이 위에 찍힌다.

【표 07】 <발화(發花)>연작 유조선 확대 부분

【표 08】 실크스크린 이미지



면봉으로 점을 찍기 위해 실크스크린으로 처리한 가이드라인은 그림에서 인식되지 못한다. 단순히 점을 찍기 위한 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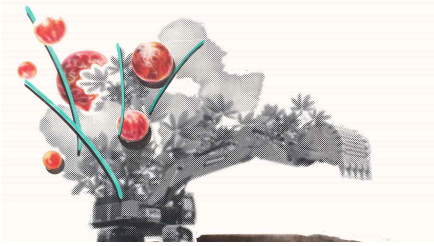
논문집』, (2021): 5-8.

드라인으로 존재할 뿐 감상의 단계에서 그 어떤 인지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려졌지만 배경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밑작업을 바탕으로 찍혀진 점들은 일정한 크기 내에서 다른 명암으로 그려질 수 있으며, 다른 명암으로 그려진 각기 다른 점들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화된 이미지를 통해 사회의 구조화된 모습을 의미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명암의 점은 서로 다른 가치와 특성을 가진 개인을 의미하며 그것을 구조화하는 실크스크린은 개인이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의 의미한다. 픽셀화 된 이미지는 단단한 산업구조의 분열을 의미한다. 굴착기, 유조선, 발전소 등 기존 산업을 상징하던 이미지들이 점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영원할 것 같은 산업들과 그 산업들에 대한 믿음이 원자단위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열하는 폭발 이미지는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려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당장이라도 현존하는 수많은 기술과 산업들의 변화가 만들어낼 미래가 몰려올 것만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 역시 존재한다. 산업을 상징하는 기계들은 어두운 먹으로 그려져 마치 현재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또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를 마치 암울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현재의 변화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 희망한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그림에 녹였다. 물론 변화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동시에 가지고 올 수 있다. 또 변화라는 단어에서는 불안, 혼란의 감정이 생긴다. 평생, 영원, 안정과 같은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을 인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미래가 탄생하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 두었다.

【작품도판 03】 <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20.3x183.9cm*2



【작품도판 04】 <발화(發花) 굴착기>1, 2021, 장지에 채색, 93x143cm

【작품도판 05】 <발화(發花) 굴착기>2, 2021, 장지에 채색, 93x143cm

【표 09】<발화(發花)>연작 식물, 구름, 폭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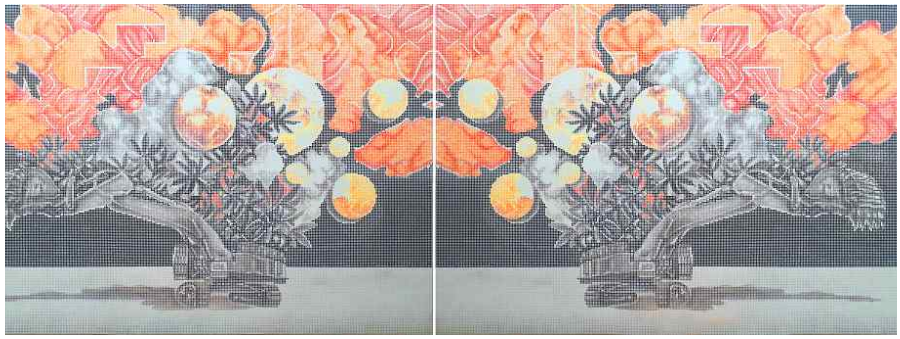
<발화(發花)>연작들은 산업 이미지들이 점으로 그려지면서 마치 이미지가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발화(發花) 연작 부분 구름>에서 해체되는 기계와 동시에 구름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해체된 것들이 바람에 날려 한데 뭉치고 충돌하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했다. 각 산업의 상징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모두 같은 시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새로운 외부 요인에 함께 반응하기도 한다. 구름은 서로 다른 외형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이 흩어지고 모이는 혼란의 과정을 표현한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당장 내일 미래로 바뀔지 모르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다.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네 가지가 있다. 외면하거나 직면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이후 우리는 또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포기하거나 성취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본인은 직면하고 성취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모두가 이와 같았으면 한다. 구름은 우리가 가지는 내적 두려움의 원인인 변화에 따른 혼란을 직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이다.

구름이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의 해체를 통해 만들어진 혼란의 집합체라면 <발화(發花) 연작부분 식물>에서 식물은 혼란을 자양분 삼아 태어나는 미래이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변화 양상을 따라 했기에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었다. 산업화시대의 변화는 국토를 반으로 갈라 동서갈등을 만들었고, 국제금융에 따른 변화는 대한민국에 빈부격차를 고착화했으며, 서비스업의

발달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남녀갈등이 시작되었다. 또 IT산업 등 신산업의 발달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어른들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사회 초년생들 간의 세대갈등을 만들어 냈다. 우리는 그런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내딛는 한발 한발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새로운 세상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화와 혼란 이후에는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식물은 변화와 혼란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자라나는 새로움이다. 그림을 통해 변화와 혼란을 직면해야 비로소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발화(發花) 연작 부분 폭발> 속 폭발 이미지는 꽃이다. 폭발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쓸 수 있다. 강렬하고 진취적인 것을 수식하는 긍정적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무너지고 불타는 부정적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본 그림에서는 폭발은 가장 화려한 이미지로 보인다. 나에게 폭발은 해체를 통해 변화를 만드는 원인이면서 해체를 통해 피어나는 꽃과 같다. 폭발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어 발화(發火)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발을 새로운 미래가 피어나는 꽃과 같이 표현하고 싶었기에 꽃의 의미를 뜻하는 화(花)를 사용하였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대칭 구도를 통해 폭발 이미지의 전체 모습을 마치 꽃이 피어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참고도판 01】 장미꽃 단면



【작품도판 03】 <발화(發花)>연작, 2021, 장지에 채색, 120.3x183.9c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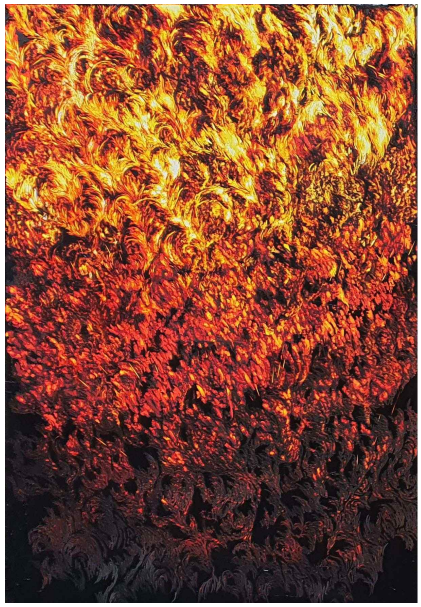
우리는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자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이중적인 존재이다. 그렇기에 사회 변화에서 불안을 느끼는 개인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폭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수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나는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가 변화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생존 가능함을 주장한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우리를 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타인의 가치관에 내 생각을 강요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제공하고 싶은

희망을 담았다.

나의 그림을 통해 내가 인식하고 찍은 현재의 '점'과 누군가 정의했을 과거의 '점'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들만의 미래를 진취적으로 그렸으면 한다. 또 미래를 살아갈 '미래인'들이 우리의 현재를 부정적 과거가 아닌 그들의 시대로 전진하고 퇴보하길 반복하며 나아가던 진보의 시대로 기억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내가 폭발 이미지로 산업의 변화를 표현한 이유이다.

2. 시스템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나는 현재 벌어지고 현상과 과거부터 우리가 쌓아온 시스템이 섞여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할 것이란 의미를 그림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아크릴을 인류가 과거부터 쌓아온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여 퇴적층(堆積層)처럼 쌓아올렸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파편적인 정보로 덥혀있는 표토(表土)를 걷어내고 과거의 퇴적층들을 함께 공존시켰다. 그리고 과거의 것들과 현재의 것들이 섞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시스템 변화 모습을 폭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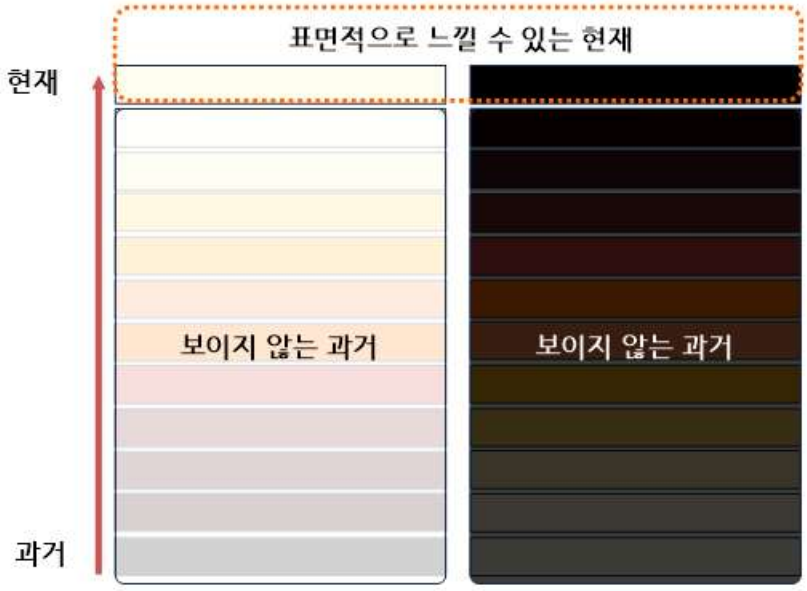


【작품도판 6】 <발화(發花) 시스템 변화>1, 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작품도판 7】 <발화(發花) 시스템 변화>2, 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시스템의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채각(彩刻)이다. 점묘는 파편화된 정보들을 수합하고, 기존의 산물들이 분열되고 재조합되는 모습을 그리는 방식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채각(彩刻)은 우리에게 일차원적으로 인식되는 현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작가로서의 태도를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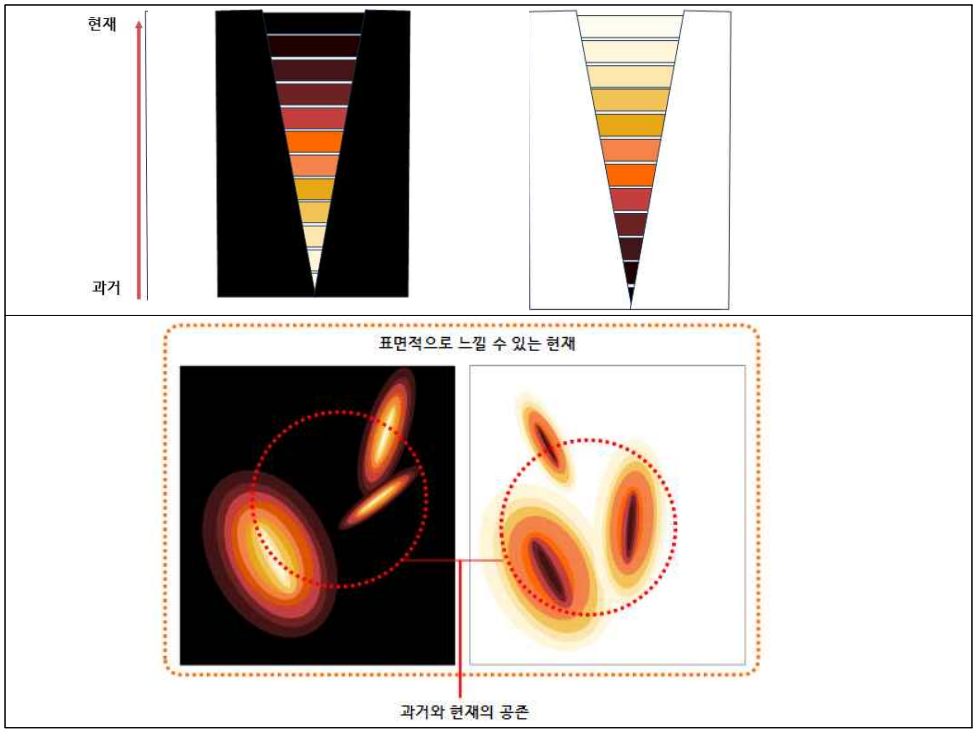
【표10】 표면적으로 인식되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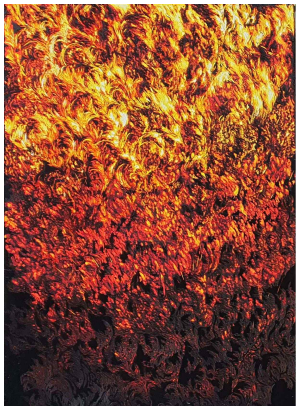


채각(彩刻) 작품은 앞서 설명한 점묘(點描) 작품들을 만들면서 느낀 현재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기술과 인식의 변화로 산업이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 또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접촉되는 파편적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를 표면적으로 인식할 뿐이다. 때문에, 현재를 넘어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선 과거를 함

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술 변화는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든다. AI 와 로봇으로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실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재생에너지와 핵융합발전에 대한 기술개발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당장은 기술개발이 기술의 설계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하지만 기술이 우리가 과거부터 쌓아온 질서, 관습, 법과 같은 시스템에 닿은 순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때문에,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의 정보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주장한다.

【표 11】 인류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아크릴 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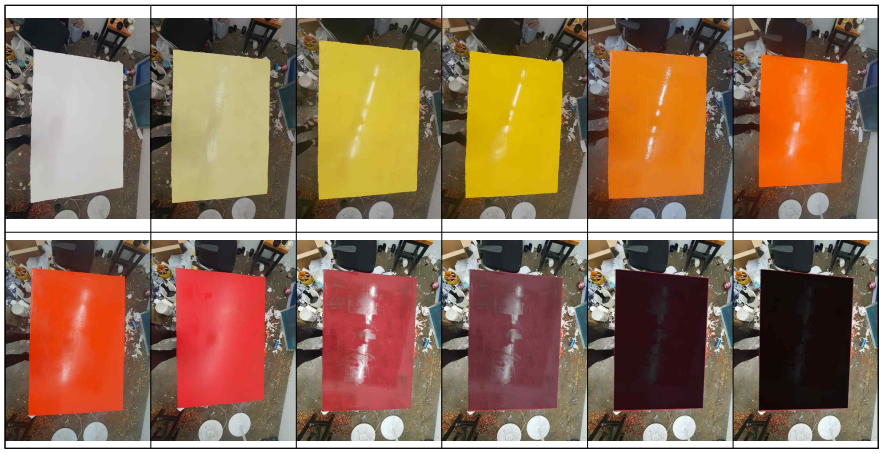


【작품도판 06】 <발화(發花) 시스템 변화>1, 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작품도판 07】 <발화(發花) 시스템 변화>2, 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나는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정보를 발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한다. 아크릴을 파내면서 현재를 상징하는 가장 위의 아크릴 표면을 걷어내고 과거를 상징하는 겹겹이 쌓인 아크릴 적층을 발굴해낸다.

【표 12】 12색 아크릴 물감 층의 쌓이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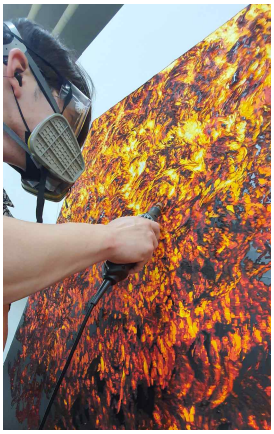


위의 【표 10】과 같이 12겹의 아크릴 적층은 우리 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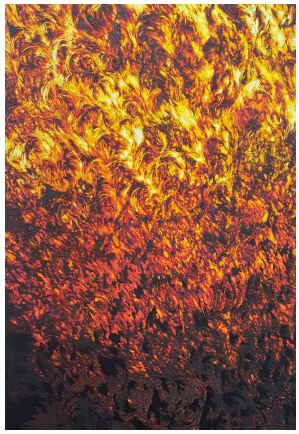
가 쌓아온 역사의 지층으로 볼 수 있다. 현재만 존재하는 표면을 깎으면서 가장 아래 깔린 색 까지 나타나게 하며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표 12】는 채각(彩刻) 기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 아크릴을 쌓아가는 모습이다. 아크릴 물감을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총 12가지의 색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쌓아 올렸다. 물론 이런 작업은 차후 물감을 깎아 낼 때 효과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지만 작품의 의미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물감을 쌓아 올림으로써 색들의 각층들이 우리가 누리는 역사적인 산물들로 느낄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역사적 산물이란 법이 될 수도 있고, 규범, 민족성 등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쌓아 올린 다양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표 13】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연마기로 표면갈아내기

작품 표면


작품전체 이미지

쌓아 올린 물감들을 고속의 회전체인 연마기로 갈아내며 작업한다. 이 작업으로 인해 다른 색으로 쌓여 보이지 않던

아래 색들이 나타난다. 단순히 색이 나타나는 것을 넘어 굳어있던 아크릴이 가열되면서 녹고 색이 섞이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살면서 활용하거나 이용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시스템이 변화에 따라 다시 인식되고 변화에 따라 뒤섞이는 현상을 의미할 수 있다.

【작품도판 08】 <발화(發花) 점선면>1,2, 2022, 장지에 채색, 90.9x60.6cm

위 작품들은 2022에 진행한 작품들이다.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폭발 이미지를 평면에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이유는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변화의 과정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겠지만 변화는 한순간에 발생한다. 마치 폭발이 발생하는 순간을 우리가 눈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변화의 순간을 우리는 인식하기보다 변화가 발생하면서 만들어내는 열기, 확산하는 가

스와 불빛 등으로 인지한다. 나는 현재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시스템도 바뀔 미래 직전에 있음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것을 폭발 이미지로 대체한다. 그것을 위해 폭발하는 순간을 조각하듯 붙잡아내 표현했다.【작품도판 08~09】<발화(發花) 점선면> 연작에서는 폭발이 시작되는 최초의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다. 그림의 요소를 점, 선, 면으로 구성하였다. 점묘(點描)로 표현한 산업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시스템 변화 순간을 녹여 냈다. 앞서 점묘(點描)에서 사용한 산업의 변화를 상징하는 무수한 '점'들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촉발된 다양한 현상을 상징하는 '선'들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상황이 뒤섞여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단순히 산업의 변화로 인해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 두 가지가 상호 영향을 주며 사회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상황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점들로 산업의 모습과 현재의 가치들이 분열되는 모습을 표현했고 선으로는 표면을 날카롭게 가로질러 가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뚫고 지나가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표현했다. 산업의 변화로 인해 원자단위로 분열되는 가치관들과 사회를 창처럼 뚫는 것 같은 새로운 현상들은 결국 시스템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폭발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작품도판 06~09】<발화(發花)_시스템의 변화> 작품의 폭발 이미지를 통해서 포착하려는 것은 시스템의 변화이다.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에 따른 노동 시스템 변화[21], 에너지 인식 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스템 변화[22], 암호 화폐를 통한 사

회적 경제적 시스템 변화[23], 우주 기술에 따른 국가 경쟁 변화[24], 통신 기술에 따른 일상생활 변화[25] 등 다양한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미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무엇이든, 어떻게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우리의 현재는 결국 시스템 역시 바뀔 것이다. 시스템(system)이란 조직, 제도, 체제, 방식을 뜻하는 단어이다. 조직, 제도, 체제, 방식 중 하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보는 현재는 조직, 제도, 체제, 방식 모든 것이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 곳이다.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겹겹이 쌓인 색깔의 표면을 고속의 회전체로 깎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쌓인 관습, 조직, 방식, 제도, 체제 등이 뒤섞이며 재창조되는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

21) 박성진, 「포스트휴먼 로봇경제 시대의 정치철학」,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2017): 114-118.

22) 박병원,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V(총론, 에너지 기술혁신 미래전망 2030, 미래연구 매핑 및 평가방법론 개발, 한국인의 미래인식과 미래 적응력 측정 외)」,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41-52.

23) 김형섭, 「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9): 29-62.

24) 유준구, 「우주경쟁과 우주안보」, 『서울대학교 통일편화 연구원』(20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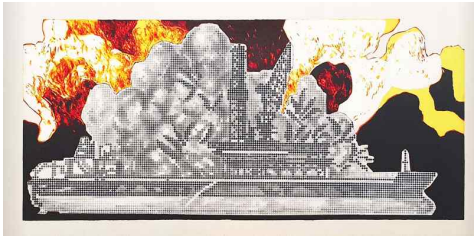
25) 강순희, 「정보통신기술과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2002): 3-19.

3. 부정(不定)의 미래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나는 현재의 변화를 그림을 표현하였다. 현재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이유는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현재의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다양하기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되었다. 때문에, 현재와 과거를 인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를 인식한다고 해도 미래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래는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개개인 별로 그려지는 미래가 너무나 다양했다. 때문에 나는 정해질 수 없는 미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폭발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와 실제로 나타날 미래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표현했다.

나의 그림들은 대칭의 구도를 가진다. 그림에서 좌우대칭을 보이는 데칼코마니 형태는 점묘(點描)를 활용하는 그림들에서 사용되었다. 데칼코마니의 물감이 묻은 종이를 접었다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특성을 그림의 내용으로 가지고 온다. 이런 종이를 접었다 펼치는 행위를 현재의 정보들을 넣고 미래를 펼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또 데칼코마니는 좌우대칭이지만 좌우 종이 면에 물감의 번짐이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점묘(點描) 그림도 완벽한 좌우대칭이 아니다. 이를 통해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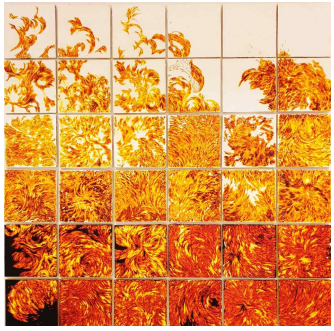
【작품도판 10】<발화(發花) 유조선>1,2, 2021, 장지에 채색, 72.7x116.8cm*2

위 그림에서처럼 같은 기계인 유조선이 그려져 있지만, 우측 그림에만 폭발하는 배경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펼쳤을 때 보게 될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않고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목적을 가졌다.

【작품도판 03】 <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20.3x183.9cm*2

21년도에 그린 【작품도판 03】 작품은 좌우대칭으로 193.9cm*130.3cm의 120호 화판 2개를 연속으로 그린 연작 작업이다. 선택한 재료를 종이에 배열하고 종이를 접고 펼쳤을 때 생기는 우연적 효과를 노린 데칼코마니 기법처럼 우리의 현재 모습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미래를 형상화했다. 해당 작업은 좌우대칭으로 같은 형상처럼 보이지만 굴삭기 형상 상단부에 그려진 붉은색 폭발 이미지는 조금씩 다른

색감으로 그려졌다. 다르게 그리기 위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리고자 하였지만 한 개의 화판에 그림을 완성하고 다른 화판의 그림을 그리면서 달라진 물감의 농도와 습도 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였다. 이 역시도 앞서 말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좌우를 향하는 굴삭기의 방향은 긍정과 부정의 결과를 동시에 가지는 미래의 모습이며 거울처럼 같은 형상으로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결과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도판 11】 <발화(發花)>연작,2022, 아크릴 채색, 30X30cm*36

【작품도판 11】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는 미래의 다양한 결과를 뜻한다. 앞서 설명한 대칭형의 그림처럼 미래가 우리가 예측한 하나의 결과를 낳지 않고 다양한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작품도판 11】은 22년에 그린 30cm*30cm 화판 36개 연작이다. 해당 작품들의 각각의 화판은 상호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각 화판은 상하좌우에 놓인 화판들과의 연계를 고민하고 만든 것이 아닌 각자 독립적인 화판을 각기 다른 시간에 제작하였다. 서로 다른 폭발 이미지 표현은 우리가 상상하는 다양한

미래를 상징한다. 누군가는 선형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파편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 또 누군가는 미래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고 누군가는 문화사적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개인의 관점 또는 개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미래가 상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각기 다른 미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상상한 미래 중 일부는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각자가 그린 다양한 미래가 옳든 틀렸든 미래는 특정 하나의 모습이 선택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상이 뭉쳐 만들어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서로 다른 폭발 이미지 결과물을 하나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직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에 그 어떤 사람의 상상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

【표 14】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세부 결과

조각칼로 깎아낸 표면이미지

연마기로 갈아낸 표면 이미지

【표 14】를 보게 되면 조각칼로 깎아낸 이미지는 비교적 명료하다. 날카로운 칼로 표면을 깎아 내었기 때문에 갈아낸 이미지보다 명확한 경계선을 보인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과거를 통해 현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와 비교하여 연마기로 갈아낸 표면의 이미지는 비교적 정돈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최초에 조각칼로 깎아낸 표면을 연마기로 갈면서 연마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굳어있던 아크릴들이 서로 뒤엉키고 섞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현재를 인식하는 태도를 넘어 작품의 내용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존 시스템을 상징하는 12겹의 아크릴의 적층을 고속과 고열의 연마기로 갈아내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마기는 나의 그림에서 새로운 시스

템인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주요 도구이다. 이 기계는 기존에 작업 방식인 손으로 그려내는 것과 다른 표현을 만들어낸다. 온전히 통제 가능한 수단인 붓이나 연필이 아닌 연마기를 사용함으로써 나의 의도와는 다른 표현이 등장한다. 기존에 깎아둔 면을 기준으로 갈아내고자 하지만 고속으로 회전하는 연마석의 마찰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표현이 생성된다. 이는 마치 내가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파악하더라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기계 자체는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회전하는 통제된 도구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완력과 신체구조에 따라 통제 범위가 달라진다. 또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한 기계이지만 그것이 맞닿는 표면의 요철에 따라 예상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마치 우리가 현재 맞이하는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것 같다. 현재 개발되는 AI와 양자컴퓨터, 로봇기술, 우주기술, 핵융합 등 다양한 기술들은 우리가 설계한 방향대로 통제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실 내부에서 진행한 결과물들은 실험실 밖에서 우리가 쌓아온 많은 시스템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한다.

Ai에 의해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섰다는 정보가 들려왔다. 기술발달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과거의 정보를 살펴보면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자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알파고의 수를 대신 놓아주던 인간처럼 기술의 보조수단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완전히 기존 사례를 넘어

기술의 영향권을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 개인의 경우 기술 변화에 따라 생업을 박탈당하면 다른 소일거리를 찾겠지만, 전 인류적으로 본인 고유의 기술이나 업이 전도 당했을 때는 우리가 AI 기술을 개발한 목적과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전 인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협약이나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일반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급여를 받으며 생존하는 절망적인 미래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로봇 기술과 결합한 AI가 완전히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여 문학작품에서 꿈꾸던 '유토피아'가 탄생하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 또는 AI의 작동이 불가능한 기반 인프라가 없는 우주로 나가 SF장르와 같이 식민제국을 건설하는 인류의 도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1 이인승 작가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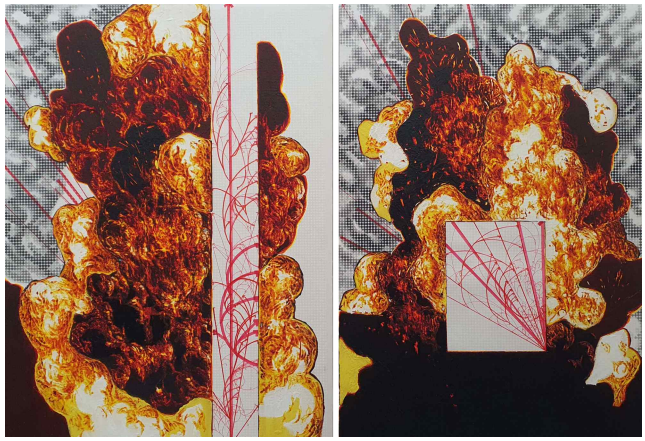
이렇게 나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상상해본다. 허무맹랑할 수도 있고 납득이 가능한 범위일 수도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상상만을 할 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이유는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2020~2022년 까지 진행한 작업은 산업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표현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음에도 현재를 포착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정의하고 포착하고자 하는 현재가 당장이라도 변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림을 통해 시대를 담아내고자 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미래를 살아갈 '미래

인'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희망 사항이 있다.

나의 작품은 현시대가 미래의 직전에 있었음을 후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희망한다.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인'들이 현시대를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시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21세기 냉전의 시대, 강대국 패권경쟁으로 인한 고립외교의 시대 등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들이 현재를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준 이기적인 세대로 인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들의 기준에서 부정적인 과거가 아닌 미래 세상 직전에서 무수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퇴보하기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보했던 시대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굳이 현재를 '변화'라는 키워드로 묶어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나 역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학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 과거와 현재를 선으로 이어 미래를 예측하는 선형 예측 방법이 있다. 우리도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선형적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예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기에 과거를 정의할 수 없다. 나는 현재의 사람으로서 현재를 정의할 뿐이다. 매우 소극적이나 누군가 명쾌히 정의한 과거의 점과 내가 정의한 현재의 점이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미래를 그리는 하나의 선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작품도판 08】 <발화(發花) 점선면>1,2,2022, 장지에 채색, 90.9x60.6cm

【작품도판 08~09】는 과거와 현재의 점들과 각자의 다양한 삶을 상징하는 선들을 그리면서 모두의 미래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인류 각자가 그리는 미래는 인류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할 것이다. 권위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파되는 미래도 있겠지만 결국 본인의 생업과 앞길을 가장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본인 자신이다. 나는 현재를 정의했으니 회화가 가진 정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점을 그려 선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 미래가 꼭 디스토피아로 정의될 필요는 없다. 전인미답의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로 우리는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뿐이다. 나는 그림으로 변화를 포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인식시키고 다음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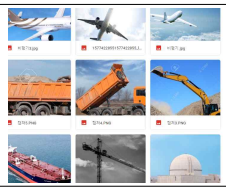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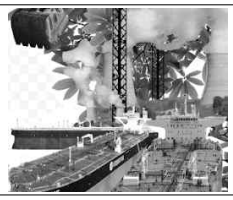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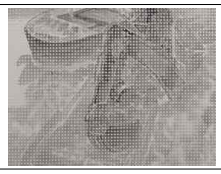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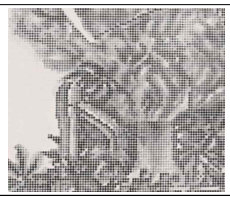
Ⅳ. 조형적 특성과 재료기법

이번 장에서는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 표현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폭발 이미지는 점묘(點描), 채각(彩刻)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아래에서는 점묘(點描), 채각(彩刻)을 통해 폭발 이미지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또 각 기법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해나가는 과정과 표현을 위해 사용한 재료와 도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산업변화 표현을 위한 점묘(點描)

점묘(點描)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총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 제작된다. 아래【표 15】에서 볼 수 있듯 점묘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로 대한민국 산업을 대표하는 기계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하였다. 이후 찾아낸 이미지들을 하나의 단일이미지로 조합하는 합성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합성된 이미지를 토대로 장지 위에 연한 먹으로 밑그림을 그려 이후 점을 찍을 수 있도록 기본 스케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점이 찍힐 수 있는 공간을 비위 둔 실크스크린을 종이위에 찍음으로써 점이 찍힐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였다. 끝으로 먹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같은 농도의 먹을 여러 번 중첩 시킴으로서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표 15】점묘(點描)이미지 제작 단계

단계	표현 방법	상세 특징
1	산업물체 이미지 확보 	- 대한민국의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물들을 검색하여 확보함
2	합성 	- 개별 물체들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만들어냄
3	담먹으로 그리기 	- 담먹으로 점이 찍힐 밑그림을 그림
4	실크스크린 	- 실크 스크린을 통한 가이드라인 형성
5	점찍기 	- 같은 농도의 점을 중첩시켜 다양한 먹색 구현

대한민국의 기반 산업의 상징물들을 그리고 그것이 현재 영원하지 않으며 분열되고 변화하는 상황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 단순히 분열되는 폭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넘어 분열과 폭발 이후에 다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폭발 이미지를 만드는 최초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 건설, 물류, 에너지 중 대표적인 기업의 기계 이미지를 위주로 선별했다. 예를 들어 항공기는 국적 항공사 중 시가총액 1위기업인 '대한항공'의 민항기를 찾았으며, 굴삭기는 국내 중공업회사 중 중장비 1위 기업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기계를 찾았다. 또 발전소는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이미지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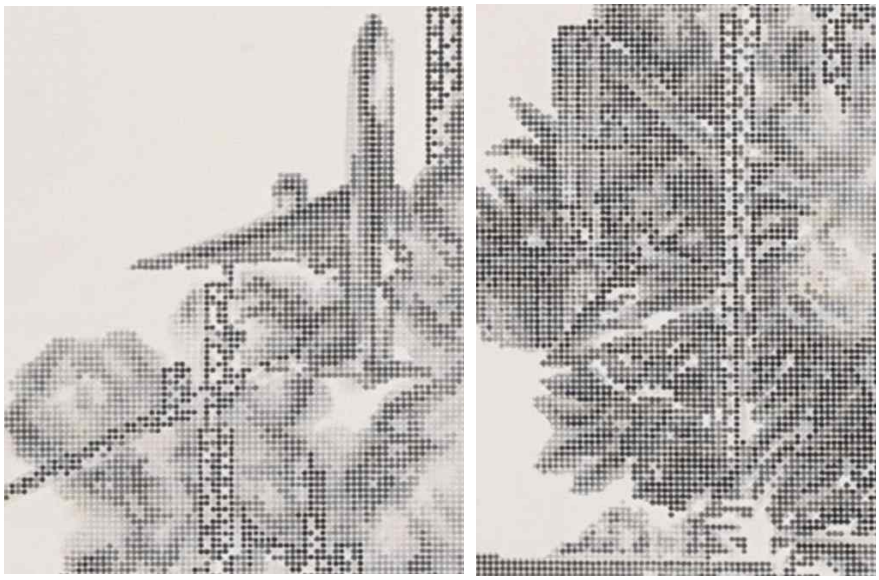
【참고도판 02】 <굴삭기 DX800>,2019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작품도판 03】<발화(發花)>,2021, 장지에 채색, 120.3x183.9cm

【표15】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찾은 후 두 번째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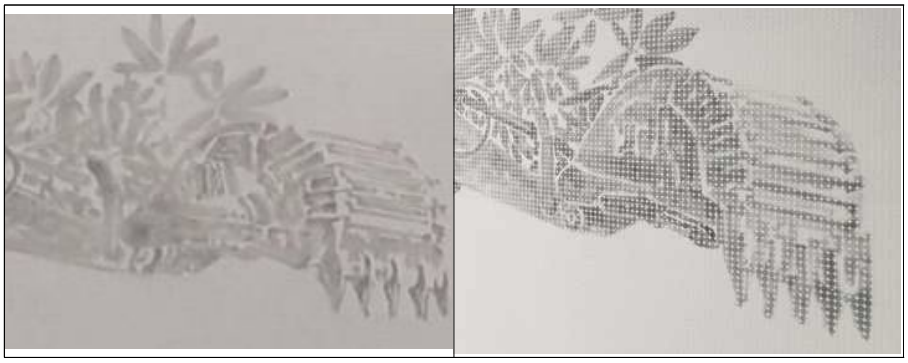
계로 서로 다른 기계 이미지들을 하나의 구성으로 묶어주는 합성을 진행하였다. 개별요소들을 조화롭게 엮어 주기 위해 이미지를 단순 배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다. 이를 위해 이미지별 연결 장치를 식물이나 구름을 택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계와 기계 사이의 연결을 구름과 식물이 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기계 간의 배치에서 어색함을 덜어냈다.

【표 16】 <발화(發花)>연작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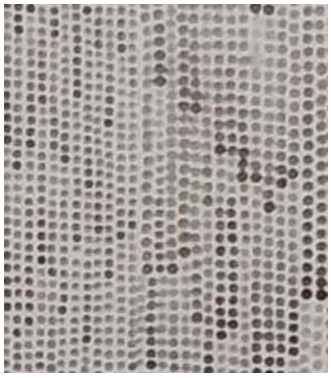
세 번째 단계로 합성한 이미지를 옅은 담묵으로 장지 위에 그렸다. 이를 통해 차후 실크스크린과 함께 점을 찍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만들었다.

【표 17】먹으로 스케치 이후 실크스크린 작업을 진행한 굴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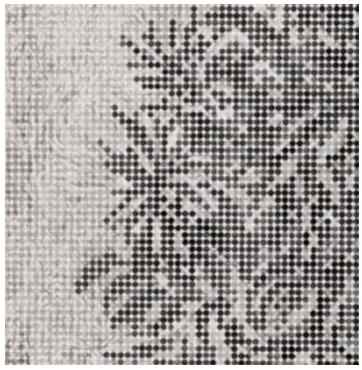


연한 먹으로 스케치를 한 이후 미리 제작해둔 실크스크린을 통해 차후 점을 찍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형성했다. Ⅱ장에서 실크 스크린은 우리가 속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실크 스크린은 의미 형성 이전에 표현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점을 찍게 되면 매우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을 수 있게 된다.

【표 18】실크스크린 유무에 따른 차이



실크스크린 미활용 점찍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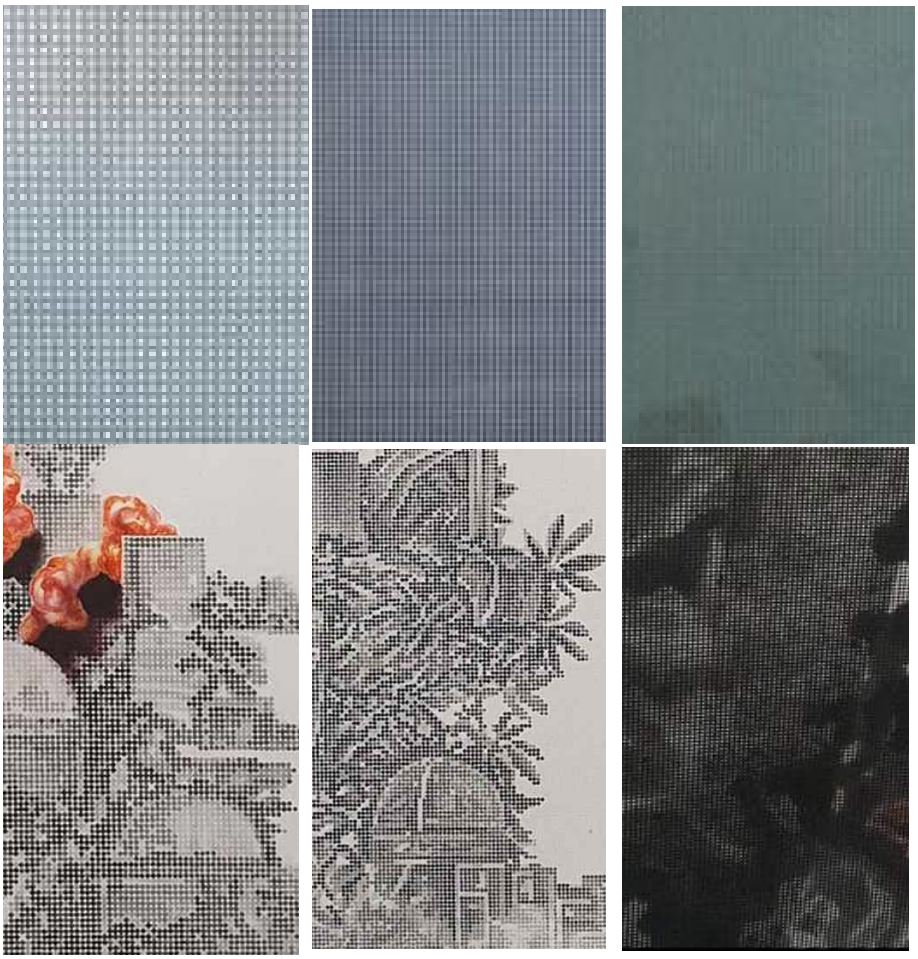


실크스크린 활용 점찍기

【표 18】와 같이 좌측은 실크스크린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들의 크기와 위치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실크스크린을 활용한 우측의 경우 일정한 간격과 크기를 보인다. 이 덕에 온전히 점을 찍는데 사용되는 먹의 농도를 통해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기계나 자연물 등의 이미지를 정교하게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표 19】 점묘(點描) 사용 도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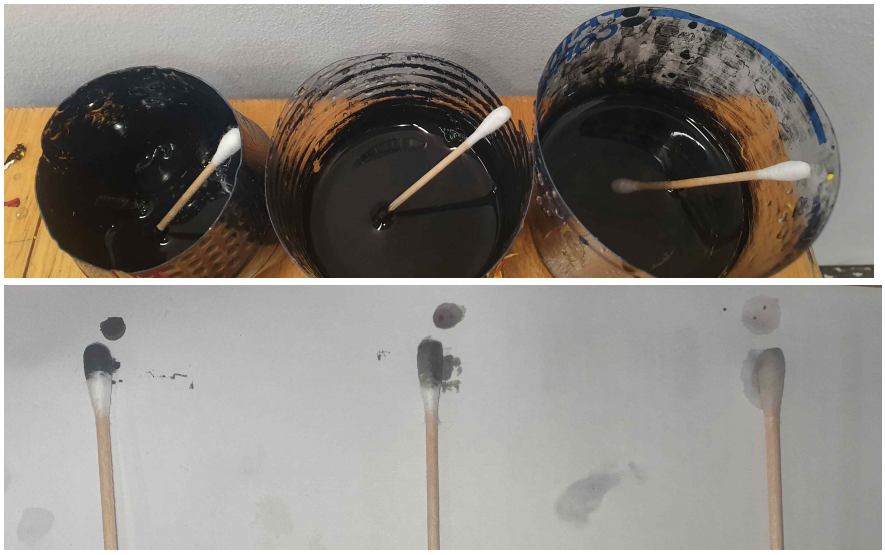
8mm 5.6mm 3mm

점묘(點描)를 통해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

크 스크린의 망점 크기는 총 세 단계의 실험을 통해 최종 지름 5.6mm의 망점 크기를 작품에 주로 사용하였다.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지름 8mm의 망점은 표현할 수 있는 디테일이 5.6mm에 비해 떨어지고 3mm는 표현할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자세하여 점묘(點描)의 느낌보다 실크 스크린으로 그림의 효과를 낸 것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때문에 21~22년까지의 점묘(點描) 작업들은 대부분 5.6mm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지 합성과 실크 스크린 작업이 끝나면 점묘(點描)를 하게 된다.

최초 밑그림과 실크스크린으로 형성된 점이 위치할 공간에 면봉에 먹의 농도를 조절하며 이미지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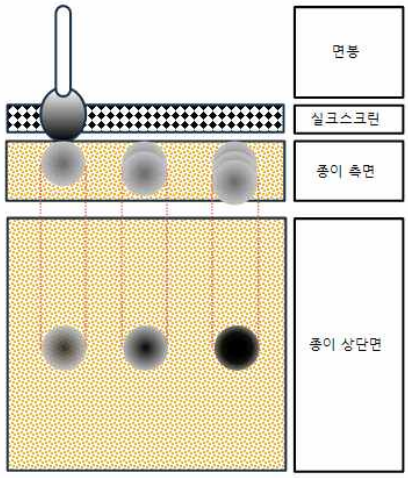
【표 20】 점묘(點描) 사용 도구



먹물 10ml　　먹물 5ml+물50ml　　먹물 5ml+물150ml

점묘(點描)를 위해 한지에 먹을 활용하였다. 해당 재료는 동양화를 그리는 관성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효율적인 재료로 접근하였다. 나는 동양화 재료의 장점을 보존이나 전통성에 기대어 활용하지 않는다. 본인은 동양화 재료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한지의 물성을 중심으로 재료의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해 왔다. 한지의 물성 중 본인이 주장하는 가치는 투습성에서 나온다. 한지는 단순히 물감을 쌓아 올리는 하나의 바탕이지만, 다른 재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투습성을 통해 종이 안으로 색을 채워 넣음과 동시에 쌓아 올릴 수도 있는 물성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실크스크린을 통해 종이 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고 먹을 찍는 횟수를 다변화하여 가이드라인 하단에 있는 종이에 다양한 정도의 먹색을 표현할 수 있다.

【표 21】 한지와 먹의 물성을 활용한 기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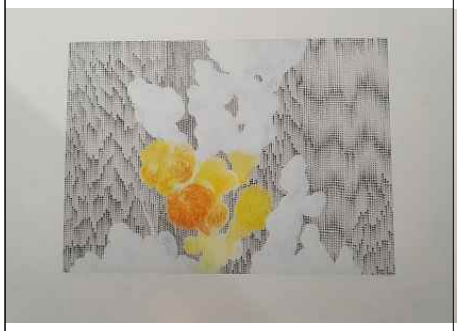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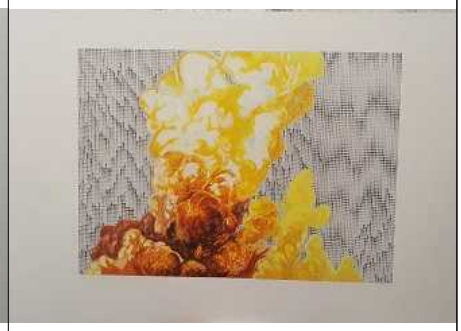
점묘 방법	상세 특징
	- 같은 농도의 먹을 사용하여 면봉으로 점을 찍음
	- 종이 위에 점이 찍힐 가이드라인 형성
	- 같은 농도의 먹을 횟수를 다르게 찍음
	- 같은 농도의 먹을 다양한 횟수로 찍음으로써 다양한 먹의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음

2. 시스템 변화 표현을 위한 채각(彩刻)

앞서 설명한 점묘(點描)로 표현한 것이 기존 산업의 변화라면 채각(彩刻)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의 변화이다. 이번 절에서는 본인이 주장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채각 기법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폭발 이미지를 시스템 변화의 상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폭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효과적이란 관객이 실제로 폭발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함과 확산하는 뜨거움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단순히 폭발을 잘 그려내는 것에는 한계가 명확했다. 단순히 폭발을 묘사해 나가는 것을 버리고 다양한 방법을 실험하여 가장 최선을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표 22】 단순 그리기를 통한 폭발 표현

최초에 시도한 방법은 단순히 폭발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표 22】는 폭발을 단순히 그려내는 것에 집중한 작업이다. 붓으로 색을 칠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해당 방법

에서는 동양화 재료의 물성이 폭발을 그리기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단순히 그리는 것은 폭발의 자연스러움과 불규칙함을 표현할 수 없었다. 손으로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와 판단이 개입된 붓질이 반복되었다. 이런 방법으로는 폭발에서 느낄 수 있는 불규칙함이나 강렬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단순히 그리는 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두 번째 방법으로 택한 것은 흘림 기법을 통해 폭발의 불규칙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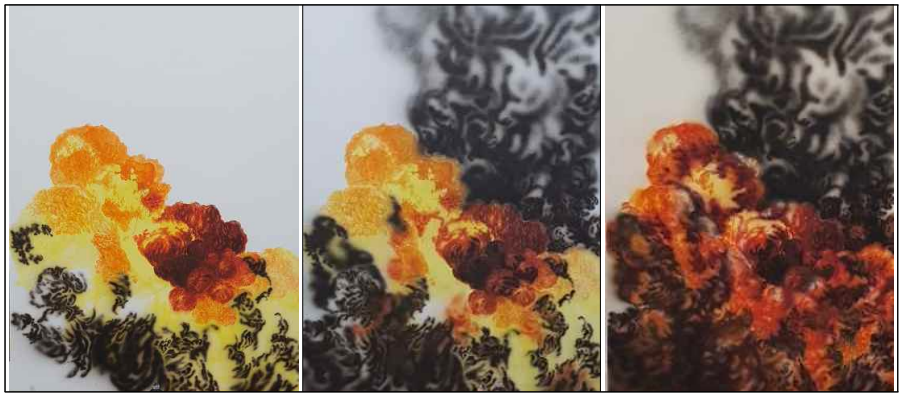
【표 23】 물감 흘리기를 통한 폭발표현

두 번째 방법으로 붓으로 그려내기보다 물을 흘려 자연스러운 폭발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다. 물감을 묽게 만들어 아크릴 바인더로 코팅된 종이 표면 위에 올린 후 화판의 각도와 바람을 이용하여 의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을 만들었다. 물론 최초 시도에 대한 반성으로 의지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표현은 가능했지만, 폭발의 거대하면서도 날카롭고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것 같은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에어브러쉬라는 새

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표현 효과를 만들고자 하였다.

【표 24】 에어브러쉬를 활용한 폭발 표현1

【표 25】 에어브러쉬를 활용한 폭발 표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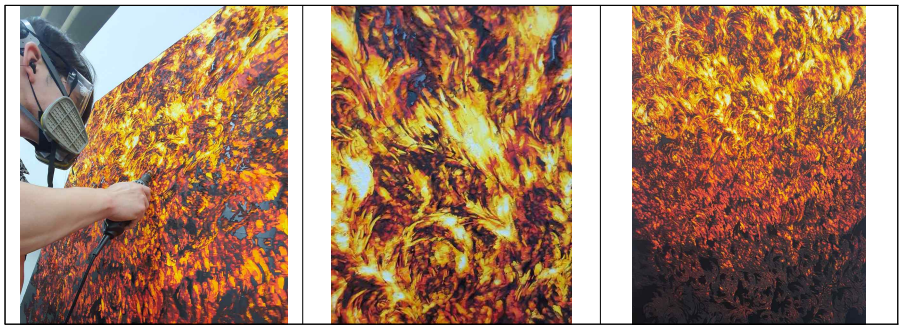


두 번째 표현 방법에 대한 반성으로 다양한 폭발의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그리는 자의 의지개입을 축소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했다. 에어브러쉬라는 장비를 활용하여 기존 두 가지 표현 방법 위에 추가로 그려내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그리는

방법의 정교함과 흘림 기법의 우연성과 함께 에어브러쉬의 다채로운 표현을 섞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관객에게 전달되는 효과적인 모습은 적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능력의 문제가 있으면서도 결국 평면 위에 그려진 이미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잘 그려낸다고 해도 폭발을 찍은 사진 보다 폭발을 잘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폭발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관객은 폭발을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폭발의 강렬함을 느끼지 못한다. 단순한 평면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기에 폭발의 확산하는 역동성이나 거대하게 움직이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폭발을 보며 느끼는 불규칙하면서 강렬하고 거대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정되어 있지만, 폭발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표현기법을 찾아야 했다. 그 때문에 선택한 것이 채각(彩刻)이다. 채각(彩刻)은 평면 이미지처럼 고정된 결과물이지만 깎여 나간 요철로 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깊이를 보이며 다양한 발색과 의도하지 않은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표 26】 채각을 활용한 폭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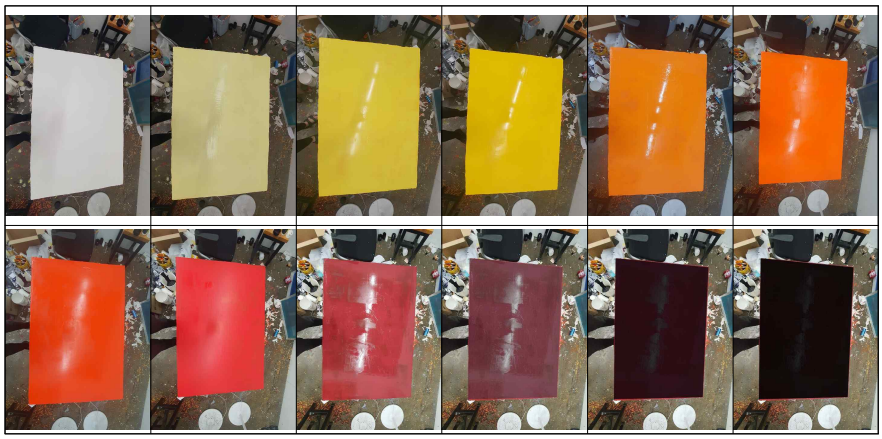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폭발을 실제로 목격할 일이 많지 않다. 오히려 앞서 지적한 사진 또는 그려낸 이미지를 통해 폭발은 어떨지 생각할 뿐이다. 나 역시도 폭발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다. 또 폭발은 형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습이 다양하다. 때문에, 폭발이란 것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상적인 것으로 기억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폭발을 구체적 이미지로 제한하기 전에 추상화 같은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폭발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에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구체적 형상을 나타내는 폭발의 외곽을 없애고 나의 기억에 있는 폭발의 질감을 담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또 앞서 지적한 그리는 사람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탐구했다. 이를 위해 고속의 회전체로 겹겹이 쌓은 물감을 갈아내는 작업을 통해 물감이 뒤섞이며 의도를 벗어난 표현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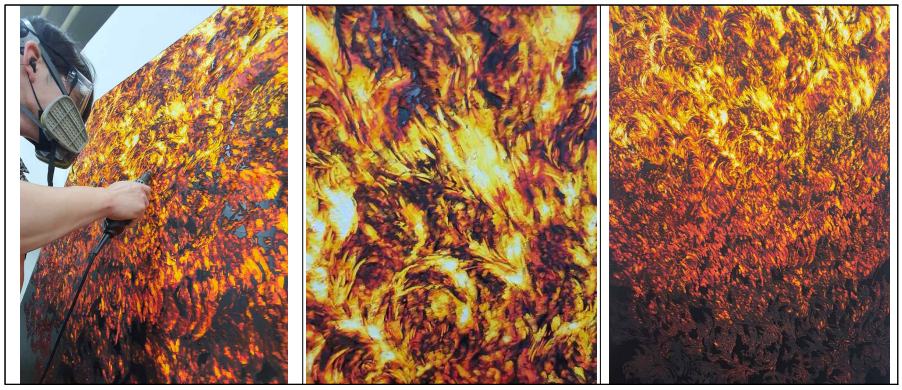
【표 28】12색 아크릴 색 종류

titan white	titan black
lemon yellow	brown red
perma yellow light	crimson
perma yellow deep	naphthol red light
perma yellow orange	vermilion(hue)
perma orange	perma orange
vermilion(hue)	perma yellow orange
naphthol red light	perma yellow deep
crimson	perma yellow light
brown red	lemon yellow
titan black	titan white

【표 27】12색 아크릴 물감 층의 쌓이는 과정



【표 29】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500ml 아크릴 물감을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총 12가지의 색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최소 3mm, 최대 6mm 까지 쌓아 올렸다. 쌓아 올린 물감들을 고속의 회전체로 갈아내며 작업한다. 이 작업으로 인해 다른 색으로 쌓여 보이지 않던 아래 색들이 나타난다. 단순히 색이 나타나는 것을 넘어 굳어 있던 아크릴이 가열되면서 녹고 색이 섞이는 현상도 발생한다. 아크릴 물감을 속 아크릴 수지는 70~110℃ 온도에서 열 변형이 가능하다. 때문에, 같은 계열의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95~110℃ 사이에서 성형 가공을 진행한다.[26] 나는 아크릴의 열 변형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히 깎아내는 것을 넘어 굳어있던 아크릴 물감들을 녹이고 뒤 섞이게 하였다.

26) “아크릴 수지”, 단어검색, 은성실업, 검색일 2022.10.25.
http://eunsungfc.com/bbs/board.php?bo_table=dataroom&wr_id=5&sst=wr_hit&sod=desc&sop=and&page=1

【표 30】 채각(彩刻)에 사용한 연마기

드레멜 250 32mm연마석

헤머드릴 70mm 연마석

채각을 위해 사용한 소형 연마기(드레멜250)와 중형연마기(보쉬GSB1000RE)는 각 기계의 출력과 연마석의 크기 차이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냈다. 또 두 기계 모두 다루는 사람의 완력 차이에 의해 다양한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기계의 출력과 연마석의 크기가 아크릴의 표면 요철에 따라 영향을 받고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성능의 기계와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만 다양한 결과물이 탄생하는 것은 최초 의도한 폭발 이미지 목적과 부합한다.

【표 31】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세부 결과

조각칼로 깎아낸 표면이미지

연마기로 갈아낸 표면 이미지

【표 31】을 보게 되면 조각칼로 깎아낸 이미지는 비교적 명료하다. 날카로운 칼로 표면을 깎아 내었기 때문에 갈아낸 이미지보다 명확한 경계선을 보인다. 이와 비교하여 연마기로 갈아낸 표면의 이미지는 비교적 정돈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최초에 조각칼로 깎아 낸 표면을 연마기로 갈면서 연마기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굳어있던 아크릴들이 서로 뒤엉키고 섞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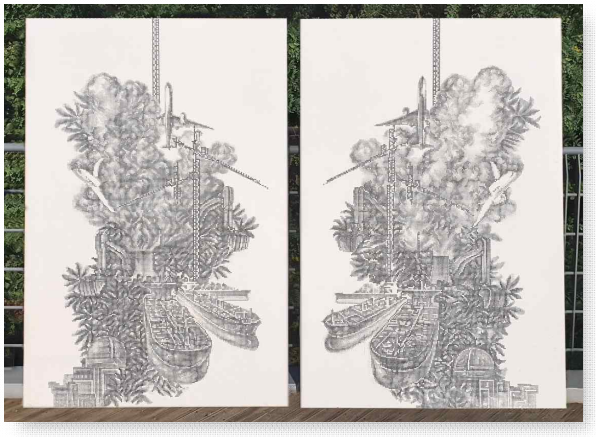
【표 32】회전체를 이용한 채각의 과정과 결과

아크릴 두께 3mm 드레멜250 - 32mm연마석아크릴 두께 6mm 헤머드릴 -290mm

【표 32】를 보면 아크릴 두껍기 별로 다른 기계를 사용하였다. 3mm 두께의 아크릴을 갈아내는 것과 6mm 두께의 아크릴을 갈아내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 두 배의 두껍기 차이로 인해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소형 연마기(드레멜250)는 아크릴의 마찰을 이기지 못하고 멈추는 일이 잦았다. 때문에, 6mm 두껍기의 아크릴 적층을 갈아낼 때는 출력이 좋은 중형 연마기를 사용하였다. 현재는 쌓은 아크릴의 두께와 사용 도구를 각각 나누었다. 하지만 차후 작업에서는 두 개의 차이와 효과를 적절히 잘 섞어볼 예정이다.

3. 데칼코마니의 대칭구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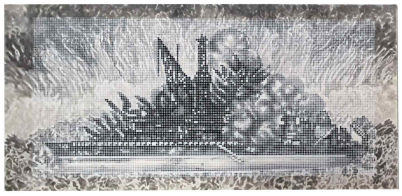
데칼코마니는 1935년 도밍게즈 Oscar Dominguez(1906~1958)가 최초로 발명한 것이다.[27] 무의식과 우연의 비합리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법으로 엄밀히 말하면 본 연구자의 그림과 연관성이 없다. 나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좌우대칭으로 만들어지는 시각적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그림에서 좌우대칭을 보이는 데칼코마니 형태는 점묘(點描)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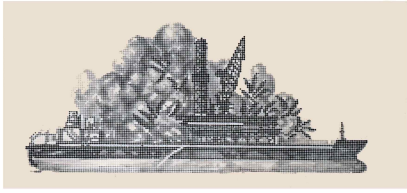


【작품도판1】<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83.9x120.3cm*2

27) “데칼코마니”, 세계미술용어사전, 검색일, 2022.02.1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94055&cid=42642&categoryId=42642





【작품도판5】<발화(發花) 유조선>1,2, 2021, 장지에 채색, 116.8x72.7cm

【작품도판2】<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20.3x183.9cm*2

이런 데칼코마니의 형태는 마치 개화한 꽃 같으면서 폭발하는 폭발의 순간처럼 보이게 한다. 그림의 제목은 발화(發花)이다. 발화(發火)와 같은 이미지를 통해 기존 질서의 붕괴와 변화를 표현한다. 이를 통해 그림에서 변화로 표현되는 폭발, 불꽃, 분열 등이 양분이 되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긍정적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단일 그림 한 장에서 의미를 응축시키는 것을 넘어 전시되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품을 제작하면서 좌우대칭으로 진행하였다.

내가 그린 폭발 이미지는 변화에 대한 불안을 담고 있다. 특히나 폭발 이미지는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만든다. 폭발이란 단어는 ‘붕괴’나 ‘파괴’의 의미로 사용되

지만, ‘폭발적인’과 같이 수식어로 사용될 때는 역동적이거나 진취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나 나의 그림이 산업물체들이 그려져 있으며 현재의 변화를 담고 있는 그림이기에 보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접근될 여지가 있었다. 때문에, 그림 내부의 구성물들이 붕괴와 혼란의 뜻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대칭 구도를 택하면서 그림 전체의 내용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칭에 대해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좌우 또는 상하 구조에서 비례나 크기 등이 일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함을 주기 때문이다. 대칭의 형태는 일상부터 문화 유적까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 신체는 내부 장기는 대칭보다는 비대칭의 형태를 가지나 그것을 보호하는 골격과 피부는 대칭 형태이다. 대칭 구조에 대한 선호는 비대칭 구조가 생존에 불리함을 가진다는 유전적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한 선천적인 선호라는 의견도 있다.[28] 인체뿐만 아니라 문화 유적에서는 동서를 막론하고 대칭 형태를 가진 다양한 유적지를 볼 수 있다. 아래 문화 유적지는 단순히 미학적 안정감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정성을 위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대에 와서 기술의 발전으로 비정형 건물이 안전함을 담보로 건축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대칭 형태의 건물이 안전함을 담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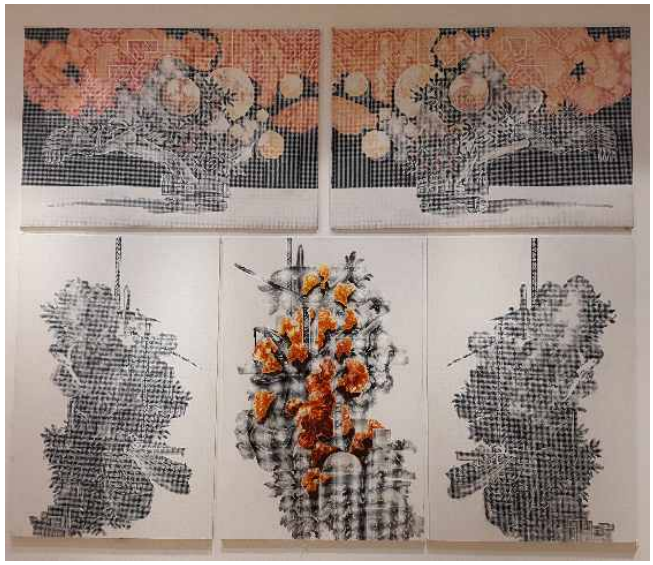
---

28) 진 월렌스타인, 『쾌감 본능』, 김한영 역,(서울:은행나무, 2009), 52-62.

저자는 성 선택 시 작동하는 본능을 설명하며 대칭과 관련하여 성적 매력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작품도판 04】 경복궁 정면

【작품도판 05】 파르테논 신전 정면



【참고도판 06】 발화(發花) 전시 전경

나는 위의 건축물들과 같이 하단부에 같은 무게감과 같은 비례를 가진 세 개의 기둥을 세워 상단부에 지붕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또 지붕 위치에 있는 그림 역시 대칭 구조로 만들어 무게 중심을 일정하게 만들어 기둥 구조물 위에 안전하게 놓일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나는 앞서 말한 인간의 대칭에 대한 선천적인 선호, 대칭의 비례 예측 가능성,

과거 대칭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그림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나의 그림에서 폭발이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이를 통해 혼란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미래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 모란도와 분재 형상 활용

접근성이란 표준국어대사전에선 따르면 “통행 발생 지역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일반적으로 거리・통행 시간・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많아 진다.”[29] 라고 설명한다. 사전적으론 물리적인 이동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단어이나 다른 분야에선 “디자인・시스템공학・인간공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교통・시설・제품・서비스・디자인・권리・정보통신 등의 환경을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0]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본다면 물리적 이동을 넘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음을 포괄하는 단어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내가 말하는 이미지 접근성을 설명하자면 관객이 관람할 때 심리적인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대칭 구조를 통한 안정감 확보를 설명하였다. 아래에서는

---

29) “접근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2.12.25.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30) “접근성”,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검색일 2022.12.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087&cid=43667&categoryId=43667

관람 시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모란도와 분재 형상을 활용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형상은 점이나, 실크 스크린 기법 등이 아니다. 세부적인 각 기법과 표현들이 뭉쳐져 만들어내는 큰 덩어리가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다. 큰 덩어리는 최초로 관객을 마주하는 형상이다. 나는 최초 관객이 마주하는 형상을 통해 내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싶었다. 관객에게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 형식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민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란도'와 '분재'의 도상을 활용하였다.

'모란도'에서 모란은 본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이므로 가정마다 모란 병풍이나 화첩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궁중은 물론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서도 모란꽃 그림은 항상 요구되다.[31] 민화에서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도안이 모란도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미술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중장비 등의 산업 관련 이미지들과 폭발을 통한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그것들을 한 번에 묶어줄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활용한 것이 사람에게 익숙한 본 '모란도' 와 '분재(盆栽)' 형상이다.

나의 그림은 일상에서 보기 힘든 산업 기계들과 식물, 폭발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들었다. 이런 이미지들을 결합할 때 시각

---

31)"모란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검색일 2022.01.18.,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6567

적으로 어색함과 불편함이 발생한다. 나는 이미지를 보는 관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익숙한 이미지 도상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의 조화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참고도판 03】 작자미상, <모란도>, 종이에 채색 233.4×228.4cm, 19세기, 서울역사박물관

【작품도판12】<발화(發花)>연작 부분,2021, 장지에 채색,183.9x120.3cm

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민화에서 익숙한 모란도의 형상이었다. 모란도의 형상은 뿌리를 중심으로 형형색색의 모란꽃이 존재한다.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여 국가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물류 산업의 선박들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발전소를 모란도의 뿌리처럼 활용했다. 또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어내는 건설업의 상징인 굴삭기와 크레인을 모란도의 가지처럼 그림의 중심부 사이사이에 배치해 두었다. 폭발은 모란도의 꽃과 같이

배치하여 폭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였다. 또 이를 통해 마치 부귀를 희망하며 모란도를 민가에서 소유하였듯 나의 그림 속에 있는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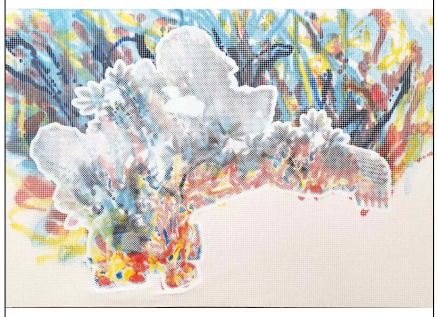
모란도와 같이 분재의 형상도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재란 화초나 나무를 화분에 심어 가꾸는 원예 기술로, 한국에서만 있는 문화가 아닌, 중국, 일본에서 모두 향유 하는 문화이다. 분재(盆栽)는 글자 뜻처럼 식재(植栽)를 그릇에 올린 것을 말하지 않는다. 분재는 분경(盆景)이라 불리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화분에 올려 조성하였다. 분재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화분에 옮겨와 키우는 개념을 넘어 자연관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도판5] <기명절지도 가리개>, 견본 채색, 각 138×53.5cm, 19-20세기 초, 국립고궁박물관

[참고도판7] <자수 사계분경도>중 1폭 부분, 고려 말기, 서울공예박물관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재는 과거부터 존재하던 자연물을 곁에 두던 문화이며 단순히 자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여러 자연물을 한곳에 구성하여 가꿔왔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자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자연관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을 옆에 두면서 각자의 자연관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는 분재를 통해 자연관을 소유하던 것처럼 변화 역시 곁에 두고 감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그림의 전체적인 형상을 분재의 영상과 유사하게 만들었다.

【참고도판 8】 소나무 분재



【작품도판 5】 <발화(發花)_굴착기2>, 2021, 장지에 채색, 93x143cm

위 그림은 자연을 소유하는 방식인 분재 형상을 활용하여 변화를 상징하는 폭발 이미지를 곁에 둘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칫 불편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변화'나 '폭발'을 익숙한 이미지로 바꾸어 관객이 이미지에 대한 불편함보다 친숙함을 느끼게 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2022년까지의 작업에서 활용한 것은 모란도와 분재 형상뿐이다.

차후 작업에서는 모란도와 분재 형상뿐 아니라 사군자 또는 산수화 등을 통해 작품을 다양하게 만들고자 한다.

Ⅳ. 맺음말

앞서 Ⅱ장에서는 나에게 접촉되는 변화에 대한 정보와 불안을 설명하며 내가 느끼는 불안을 원동력으로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얻음을 설명하고 폭발 이미지를 그린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Ⅲ장에선 폭발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하였다. 기술과 인식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의 변화를 점묘(點描) 기법을 활용하여 폭발 이미지로 만들어냈음을 설명하였다. 또 현재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변화를 채각(彩刻) 기법으로 폭발 이미지를 만들어 표현했음을 밝혔다.

나는 점으로 그려진 산업 기계를 통해 해당 기계의 필요성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가치가 모두 흩어지고 충돌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발전을 그려냈음을 밝혔다. 마치 변화를 두렵고 우울한 것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 무너지고 충돌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소생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담았음을 밝혔다. 또 12색의 아크릴을 두껍게 쌓아 올려 고속의 회전체로 갈아내 만든 폭발 이미지를 통해 기존에 우리가 쌓아왔던 시스템이 섞이고 파헤쳐지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음을 밝혔다. 추가로 대칭 구도 및 우연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다가올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Ⅲ에서는 점묘(點描)와 채각(彩刻)을 활용하여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였음을 밝히면서 해당 기법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밝혔다. 점묘(點描)로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림을 구성하는 이미지를 찾아내고 합성하며 조합해나가는 과정을 밝

혔다. 이어서 한지와 먹의 특성을 활용한 점묘(點描) 기법을 설명하였다. 또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방법을 설명하며 채각(彩刻) 기법을 활용하여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로서 점묘(點描)와 채각(彩刻) 기법을 개발하고 작품에 적용하였음을 밝혔다. 단순히 그리는 방식을 넘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시각화하는 기법을 개발했다는 점이 괄목하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다. 점(點)으로 산업의 분열을 표현하는 것을 의도하였지만, 일정한 크기의 점과 일정한 간격은 시각적으로 뜻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채각(彩刻) 기법을 통해 폭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그리는 행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기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여 더욱 확장된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때문에, 22년까지 진행한 표현 방식과 방향을 확장하여 작품을 진행하고자 한다. 점묘(點描)로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며 이미지의 구성과 이미지의 결합을 더욱 다양하게 시도하며 시각적으로 변화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채각(彩刻)으로 폭발 이미지를 표현하며 다양한 깊이와 질감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 인류가 쌓아온 시스템을 상징하는 아크릴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흙 또는 모래를 선택하여 작품의 의미를 시각화 함에 있어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끝으로 나는 이런 그림들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변화하는 현재를 폭발 이미지로 표현 한 작품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미래인'들이 우리의 현재를 전진하고 퇴보하길 반복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시대로 치열하게 다

가가던 발전의 시대로 기억해주길 희망한다.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정의한 현재의 점을 누군가 정의한 과거의 점과 이어 그들의 고요하고 정적인 지적 활동을 통해 각자의 미래를 선형적으로 그려나가길 소원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영준,『기계비평』, 서울: 현실문화연구(현문서가), 2016.

아서 단토(Arthur C. Danto), 『예술의 종말 이후: 컨템퍼러리 아트와 역사의 울타리』 이성훈 역, 서울: 미술문화, 2004.

진 월렌스타인,『쾌감 본능』, 김한영 역, 서울: 은행나무, 2009.

【논문】

곽교, 권영철,「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대한 신뢰 및 평판과 고객 충성고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윤리적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기업경영학회』32,(2016):23-42.

강순희,「정보통신기술과 노동시장」,『한국노동연구원』(2002): 3-19.

김무영,「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형을 활용한 물류산업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적용 요구분석」,『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2022학위논문(석사),(2022).

김인재, 오인근「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가 그룹의 인지 분석: 제품수

명주기 관리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사이언스학회』,(2020):89-100.

김현,「건설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기술동향과 전망.」,『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21): 5-8.

김형섭,「유럽의 블록체인 입법 및 정책 동향 -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을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2019): 29-62.

미래전망 2030, 미래연구 매핑 및 평가방법론 개발, 한국인의 미래인식과 미래 적응력 측정 외)」,『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41-52.

박병원,「과학기술 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Ⅴ(총론, 에너지 기술혁신

박성진,「포스트휴먼 로봇경제 시대의 정치철학」,『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7): 114-118.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항공용 인공지능(AI) 시장(출처 : TechNavio,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Aviation Market」, (2018).

유준구,「우주경쟁과 우주안보」,『서울대학교 통일편화 연구원』(2021): 1-4.

이서규,「불안의 극복이 가능한가?」,『대한철학회』159(2021).

이수진,「프로이트와 라캉, 불안의 개념화와 정신분석 실천 함의불안, 행위(로)의 이행 너머 환상의 횡단으로」, 『한국현대 정신분석학회』(2021): 9-45.

이주연,「변모된 재현개념이 미술사 서술에 끼친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이현숙,「2021 산업재해 발생 현황」,『고용노동부』. (2022).

임정수,「매체 도입기에 나타난 두려움에 대한 연구 = 혁명적 변화와 진화적 변화의 중재기제로서의 두려움)」,『한국언론학회』 49(2005): 33-51.

정준모,「무역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을 위한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분석」,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2022): 147-160.

정진우,「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의 법적 쟁점-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한국사회법학회』46,(2022):519-553.

조성우,유승진,박철규,「하이브리드 굴삭기 연비 개선 연구」,『대한기계학회』39,(2015):211-217.

한상범,「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3-9.

함병주,「불안, 공포의 정의 및 조절」,『대한마취학회지』7(2007): 107.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불안”, 검색일 2022.12.10.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네이버지식검색, “불안”, 검색일 2022.11.13.
국정신분석학회, 『정신분석용어사전』,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5845&cid=48639&categoryId=4863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접근성”, 검색일 2022.12.25.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접근성”, 검색일 2022.12.2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0087&cid=43667&categoryId=43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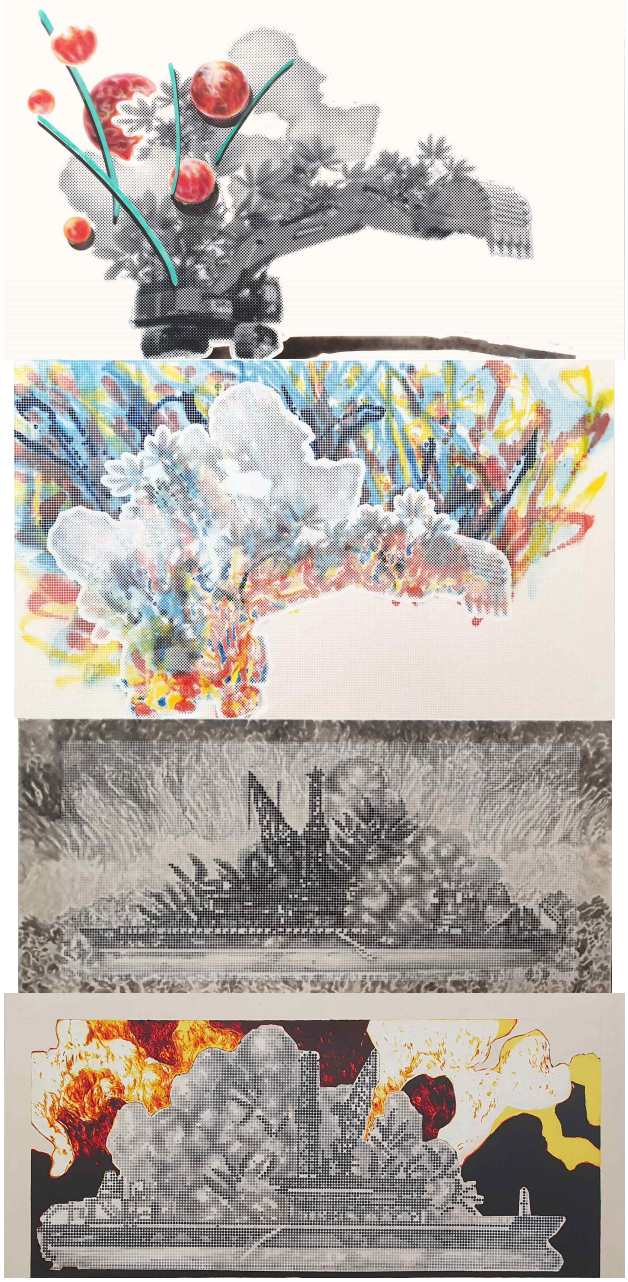
두산백과,“ESG”, 검색일 2022.09.0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03698&cid=40942&categoryId=31821

은성실업, “아크릴 수지”, 검색일 2022.10.25.
http://eunsungfc.com/bbs/board.php?bo_table=dataroom&wr_id=5&sst=wr_hit&sod=desc&sop=and&page=1

작품집

<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20.3x183.9cm*2

<발화(發花)>연작,2021, 장지에 채색, 183.9x120.3c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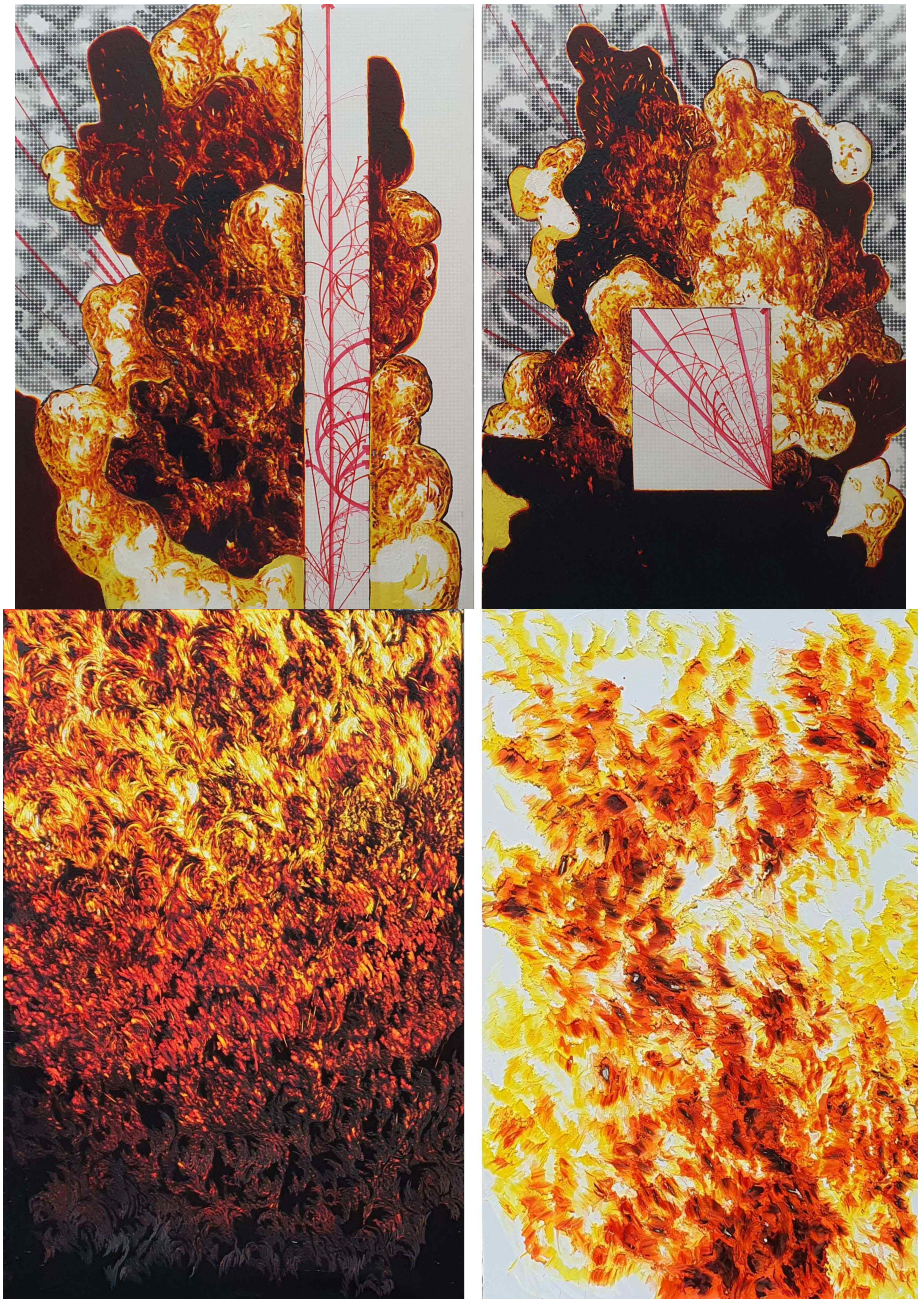


<발화(發花) 굴착기1>, 2021, 장지에 채색, 93x143cm

<발화(發花) 굴착기2>, 2021, 장지에 채색, 93x143cm

<발화(發花) 유조선1>, 2021, 장지에 채색, 72.7x116.8cm

<발화(發花) 유조선2>, 2021, 장지에 채색, 72.7x116.8cm



<발화(發花) 점선면1>,2022, 장지에 채색, 90.9x60.6cm

<발화(發花) 점선면2>,2022, 장지에 채색, 90.9x60.6cm

<발화(發花) 시스템 변화1>,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발화(發花) 시스템 변화2>,2022, 장지에 아크릴 채색, 143x93cm

Abstract

The current paper is a study of works conducted from 2019 to 2022. The current study illustrates the motivation and purpose behind the work, and accordingly, the subjects and methods of expression. Consequently, this highlights the points of differentia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works.

The subjects of expression are the personal change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present. These transformations were captured and expressed in the drawings. The pointillism method (dot drawings; 點描) was used to express the explosive imagery representing industrial transformations caused by changes in technology and perception. Also, the Chaegak (color carving; 彩刻) technique was used to create images of explosions representing the systematic changes that followed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e current study explicates the symbolism behind the imagery of explosion created by pointillism (點描) and Chaegak (color carving; 彩刻) methods.

Pointillism (點描) and Chaegak (color carving; 彩刻) were selected as methods of expression to illustrate explosive images that symbolize change. Explanation is provided

regarding the process of personally developing each of the unique techniques and how the work is finalized using these methodology. Furthermore, the features of the ingredients and tools necessary for these expressive techniques are illustrated.

Key Words : Change, Anxiety, Explosive Imagery, Pointillism (dot drawings; 點描), Chaegak (color carving; 彩刻)
Student No. : 2019-24061